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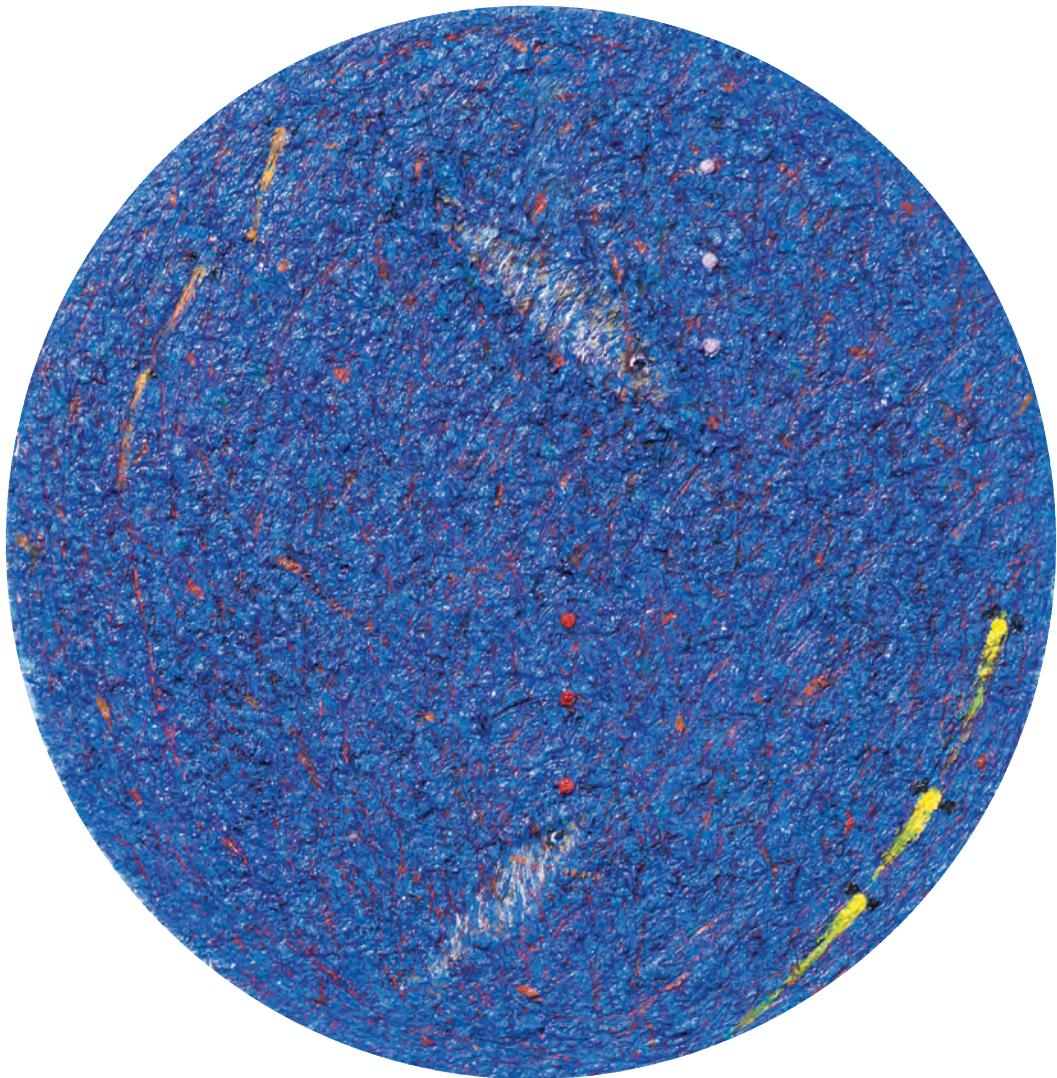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6·1 VOL.247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READ & LEAD

부산을 읽고, 문화를 짓고, 미래를 이끈다.

부산건축가회는 진실한 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축가들의 전문 사회단체입니다.



- 부산국제건축대전
- 부산주거포럼
- 부산건축상 시상식
- 젊은건축가 작품전시

- 청소년건축상상마당
- 부산건축도시관 건립 포럼
- 부산국제건축 디자인 워크샵
- 부산도시건축사진전

- 2026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건축 아카데미 강좌
- 국내·외 건축탐방
- 회원작품 답사

부산예술회관 서포터즈 예담 4기 모집



모집기간

2026. 1. 5. (월) ~ 1. 9. (금)

활동기간

2026. 2 ~ 11. (총 10개월)

주요활동

- 월 3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단원 활동
- 부산예술회관 행사 홍보물 업로드 및 홍보
- 행사 현장방문 취재 및 리뷰작성
- 부산예술회관 행사, 전시, 공연 등 현장 스태프 활동
- 예술아카데미 홍보/각 협회 행사 홍보

혜택

- 매달 소정의 활동지원금 / 활동 수료증 지급
- 우수활동자에 한해 상금 (상품권 등) 및 상장지급
- 공연, 전시 초대권 (티켓) 지급

접수방법

구글폼 지원서 양식 작성 제출 (온라인)

접수문의

070-7747-0396



대상

예술 활동에 관심있는 누구나
(예술가,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 등)
- 부산지역 거주자 우대

우대사항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자
파워블로그 / 인플루언서

모집인원

10명

지원 포지션

- 디자인 (포스터, 카드뉴스 등 웹 홍보물)
- 영상촬영 및 편집 (영상 제작 등)
- 오피니언 (글쓰기, 기고)
- 작품 제작 (그림, 웹툰, 일러스트 등)

결과 발표

2026. 1. 30. (금) 개별통지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황미애 마음속 고래전 (3층전시장) 010-9547-0307	황미애 마음속 고래전 (3층전시장) 010-9547-0307
4	5	6	7	8	9	10
황미애 마음속 고래전 (3층전시장) 010-9547-0307	황미애 마음속 고래전 (3층전시장) 010-9547-030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3,4층전시장) 051)631-4111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3,4층전시장) 051)631-4111 너도나도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18시)부산미술협회 정기이사회 051)632-2400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3,4층전시장) 051)631-4111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02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3,4층전시장) 051)631-4111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3,4층전시장) 051)631-4111
11	12	13	14	15	16	1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너도나도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02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오전/오후)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신인음악회 출연진 오디션 심사 051)634-1295
18	19	20	21	22	23	2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오후/아간) 부산연극협회 정기총회 051)645-3759 너도나도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오전)부산미술협회 제83차 정기총회 051)632-2400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02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오후)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051)632-5888	
25	26	27	28	29	30	31
(오전)부산무용협회 64차 정기총회 051)632-5116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너도나도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02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오후)부산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051)631-4111



ART BUSAN MONTHLY VOL.247

2026 JANUAR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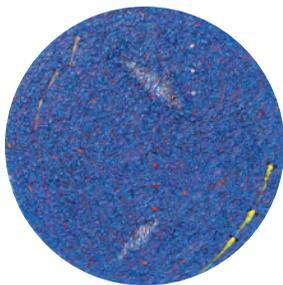
CONTENTS

신년인사

- 08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 0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 10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 11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수연
- 12 부산예총 임원 및 단위협회장

예서제서

- 17 신홍직 개인전
- 18 제1회 대송문화예술대상
- 20 제18회 상해청년미술대전
- 2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지금클래식(구 영포레 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_ 박준영
 -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가락 젓가락> _ 백근영
- 24 생활과 예술을 잇다 <예술잇지>
- 26 2025 부산건축가회 추계건축탐방 _ 이예원
- 30 제11회 부산국악축제 II - 여성국극 <가야산 연가> _ 백근영
- 32 국악 이나영 설레임 IV _ 박준영
- 34 2025 부산글로벌문학섹션
- 36 김정원의 춤 열세 번째 이야기 _ 박준영



또 다른 꿈_Oil on Canvas, 53.0×45.5cm

표지_이동근

- 1993-2025 개인전 및 초대전(25회)
- 2025 BFAA 국제 아트페어
- 2024 BAMA 국제 아트페어
- 현/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창미회, 청색회, 부산G-ART
- 부산미술협회 복지상조위원장



38 예술의 흔적

포토에세이

46 감악산 일출 _ 박병탁

수필의 뜰

50 낯선 풍경이 건네는 말들 _ 심선경

인물포커스 I

54 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본부장 _ 정해주

인물포커스 II

56 안무가 엄석린 _ 박준영

예술가열전 240

58 백향^{白鄕} 시인 이병석 _ 백근영

손으로 쓴 문학

62 을숙도 노을 _ 박혜숙

들어다보기

64 음악/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_ 이지훈

66 무용/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 _ 김미자

68 미술/ 이동순 '기억의 메타포(Metaphor of Memory)' _ 백근영

기획연재

70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5화 「군세어라 금순아」와 피란도시 _ 이용득

74 세상의窓 - 업계가 자초한 대한민국 골프 산업 '大 위기...

“관계 당국, ‘동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_ 심수화

78 예총·전사·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1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1월 통권 247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6년 12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해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품은 부산, 예술이 삶의 숨결이 되는 도시로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2026년 병오년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술부산』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그려볼 용기를 줍니다. 지난 한 해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간 앞에서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상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찾아주시며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창작의 현장을 지키신 예술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 역시 우리 도시의 큰 자산입니다.

지난해 부산은 변화 속에서도 문화예술 도시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콘서트홀이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우리 도시의 음악 지형을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기획 공연과 국내외 연주자들의 협연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관객들을 볼 때마다, 부산이 품격 있는 공연예술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자연과 예술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국내외 많은 관람객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술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지역 예술 생태계의 기반

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노력은 앞으로 더 큰 힘과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시의 문화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클래식 공연과 오페라의 전용 공간이 되어 부산의 문화적 깊이를 확장할 것이며, 이기대 예술공원은 자연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시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부산은 언제나 다양한 문화를 품어온 열린 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의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외부 문화를 포용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강한 창작의 힘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전시·축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술이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숨결이 되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작업실과 무대, 전시장 곳곳에도 밝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병오년, 부산 문화예술의 창조적 기운으로 더 높이 더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존경하는 부산 예술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찬 도약의 기운처럼 부산광역시의회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각오로 더 높이 더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산 예술의 가치와 자긍심을 지켜오신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새해에도 큰 도약을 이루고 부산 문화예술의 창조적 기운을 더욱 드높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미술·음악·연극·무용·사진·건축 등 모든 예술 분야에 따뜻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역 예술을 뒷받침해 주시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지역 예술의 길잡이로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선도해 왔으며, 다양한 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 문화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 지역 문화의 토대를 다지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미래의 역사로 이어지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부산예술의 눈부신 발자취와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올해 해양수도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세계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풍요로운 도시의 미래를 살찌우는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해 오신 예술인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은 부산 예술의 전통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이 예술문화도시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아름다운 예술 세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며 부산예술과의 소통과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오늘은 예술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 위에 이루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그 숭고한 노력에 늘 감사드리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 예술의 힘찬 도약을 여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새로운 도전과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월간 『예술부산』을 통해 부산 예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수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펼쳐주시는 지역 예술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컬처가 세계를 선도하는 이때, 지역 예술 가치를 조명하고, 부산 예술의 성과를 알리는 『예술부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예술 시사 월간지인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 이래, 부산 예술 현장 곳곳을 탐방하며 예술과 시민을 잇는 소통 창구이자,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부산'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부산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끌고, 부산의 저력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예술 소통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맞춤형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

산문화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문화재단 등 예술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예술을 향유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술부산』의 희망찬 출발을 기원하며,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일상이 기쁨과 행복의 빛으로 가득 물들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부산 예술로 위로와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수연

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예술은 언제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에도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불안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잇는 따뜻하고 경계 없는 언어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예총 임직원과 11개 협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부산을 예술로 물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산아트빌리지 흥축제>와 같이 도시와 호흡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어떤 옷을 입어도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부산 예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르와 세대를 넘어 예술이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예술이 변화하는 도시와 함께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나아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문화적 힘으로 차곡 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만들고 사랑을 머물게 하며,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부산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개방성 위에 예술이 더해질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에까지 닿습니다. 일상 속에 켜켜이 쌓이는 피로와 긴장, 불안을 예술은 조용히 어루만지며 우리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술은 더욱 중요하며, 더 세심하게 준비되고 깊이 고민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술의 본질이자 이유라 생각합니다.

예술의 가치는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창작의 과정 속에서 흘린 시간과 고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져 온 예술인들의 일상이 모여 하나의 작품과 문화를 이룹니다. 부산예총은 예술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지키고, 예술이 시민 모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술인과의 연대와 시민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예술이 부산을 더욱 찬란하게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고, 시민에게는 예술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인숙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존경하는 부산의 예술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예총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부산예총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예술이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작 지원과 문화 향유 확대, 그리고 부산예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두진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건축가회 회장)

존경하는 부산건축가회 회원 여러분, 활력과 도전이 시작되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부산건축가회는 도시의 삶 속에서 건축이 품은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며, 부산의 도시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건축이 곧 문화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굳건한 사회적 연대와 창의적 실천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예술로서의 건축이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에는 부산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가의 상상력과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져 해양글로벌도시 부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행사가 부산건축문화의 도약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성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존경하는 부산예술문화단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2026년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음악협회는 더 확장된 비전과 창의적인 변화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음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끄는 중심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음악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활동을 확대해 예술의 가치를 널리 나누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음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부산 음악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부산음악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울림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또 한 해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아쉽다는 생각보다 어두운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앞으로 우리의 안녕이 걱정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시간여행이라 치면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져야 하고 미래는 현재보다 밝아야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앞날에 무언가 희망적인 일들이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짐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경우를 찾아봐야 합니다. 근현대를 통틀어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민중의 삶이 팍팍할 때마다 선봉에 서서 위로를 주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예술입니다. 노래 한 소절, 춤 한 자락, 한 줄의 글을 통해 불안과 고통을 견뎌내며 내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유추컨대 예술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이 처한 지금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혼을 불사르는 예술인 여러분! 예술인의 사명은 자기 성취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아픔을 치유하는 막중한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예술인이 등불이 되는 해가 됩시다. 모쪼록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종국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6년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수연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예총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감사로서 첫 소임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 주신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간지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해로, 새로운 도약과 강한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뜨거운 에너지가 밝게 길을 비추고,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우리 예술인의 도전도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명옥 부산국악협회 회장

희망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큰 힘이 되었고, 예술의 길 또한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즐겁게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창작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가로서 자긍심이 한층 높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선주 부산무용협회 회장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무용협회는 지난 한 해 변화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도 무용의 본질과 품격을 지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마다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순수무용과 대중무용,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무용 생태계를 확장하며 부산 무용의 미래를 견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예술의 힘이 도시의 활력이 되고 춤이 시민의 일상 속 문화가 되도록 협회가 더 든든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부산문인협회 회장

2026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이 지닌 뜨거운 기운처럼 부산의 문화예술도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문인협회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창작의 불씨를 지키며 예술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특히 부산 문인들의 숙원이던 '부산문학관' 건립이 여러 난관 속에서도 부산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문화예술의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술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모아 더 큰 울림을 만들어 내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부산의 모든 예술인이 '세상을 듣고, 그 여운을 피워 올리는 자'로 함께 더 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웅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장락 부산미술협회 회장

오늘날 미술계가 직면한 창작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미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미술 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전시공간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더 많은 작품과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체와의 융·복합을 통해 부산 미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부산이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비전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미술협회는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부산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향해 더욱 넓게 품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국제적 흐름을 잇는 가교(架橋)가 되어, 예술가들의 창작 씨앗이 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빛과 물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의 일상에서 미술이 숨 쉬고, 미술인이 존중받으며, 창작이 삶을 바꾸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관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예술부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부산의 예술은 늘 도시의 숨결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사진예술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시각 예술의 한 축을 이루며, 우리 시대의 삶과 감성을 기록해 왔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의 창작을 북돋우는 이곳 부산에서, 사진예술은 다른 예술 분야와 연대하며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는 지역 예술계와의 협력을 통해 창작의 폭을 더 넓히고, 사진이 지닌 기록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부산 문화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술 전반이 서로의 울림을 통해 성장하듯, 저희 협회도 변화하는 시대의 감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 예술계의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부산 예술인 모두가 새로운 영감으로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창작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

부산연극협회 회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 적토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연극의 성장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협회와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예술가 여러분 덕분에 부산 연극은 변화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은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로서 중요한 한 해입니다. 부산 연극의 역량을 전국에 보여줄 기회이며, 동시에 지역 예술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창작과 활동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며, 연극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이 모두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협회도 변함없는 책임과 진정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규성 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2026년 병오년에는 노래와 함께 건강을 위하여! 음악 심리학자들은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슬픔과 고단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래하라'라고 권합니다. 노래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부산연예예술인협회가 부산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부산실버가요제 그리고 부산을 알리고 상징할 수 있는 부산향해양가요제 개최 등을 통해 대중가요가 시민들의 삶에 보람과 의미, 즐거움과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애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회장

존경하는 꽃예술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꽃예술로 삶과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 지지만, 꽃이 남긴 향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협회가 지켜온 창작의 가치 위에 더욱 자유롭고 담대한 시도를 더 해, 꽃예술의 깊이와 외연을 함께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예술의 본질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며 연대하고, 꽃예술이 지닌 치유와 소통의 힘으로 사회와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창작의 결실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회장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밝은 빛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희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차문화진흥원은 부산예총과 함께 전통 차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예술과 차가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차를 매개로 한 예술 교류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 속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2026년에는 차 문화가 지닌 섭과 정성, 연결의 힘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의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차 문화를 통해 부산 예술이 더욱 깊고 따뜻한 에너지로 확장되길 바라며, 그 길에 부산차문화진흥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에서제서



Haeundae beach

신홍직 개인전

2025. 11. 13. ~ 29.

미원화랑



신홍직의 「Haeundae beach」에는 부산이 있다.

달맞이언덕과 해운대를 병풍처럼 두른 바다는 짙고도 맑은 푸른빛으로 시야를 가득 채운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바다는 한층 더 선명한 원색으로 숨 쉬며, 부산의 여름은 자연이 지닌 본연의 야성을 찬란하고 눈부시게 드러낸다. 하얀 솜털 같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바람은 머리칼과 뺨을 스치며 바다의 냄새를 실어 나른다.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산을 즐기는 가장 역동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마구 칠해진 듯 뒤섞인 물감의 색채와 부조를 연상케 하는 질감은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며,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감상의 감정을 흔들여 깨운다. 신홍직의 회화는 설명보다 먼저 감각에 닿는다. 형태와 색은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되며, 밀그림 없이 손과 나이프가 이끄는 붓질은 우연과 즉흥의 리듬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은 더 깊은 생명력을 얻고, 진솔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그의 고백처럼, 작품 앞에 선 우리는 어느새 복잡함과 혼탁함에서 벗어난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의 순간,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벽찬 감동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은 더 깊은 생명력을 얻고, 진솔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그의 고백처럼, 작품 앞에 선 우리는 어느새 복잡함과 혼탁함에서 벗어난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의 순간,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벽찬 감동이다.

/ 편집실

1 Haeundae beach, 80.3×100cm, Oil on canvas, 2025 2 일출, 130×130cm, Oil on canvas, 2025



제1회 대송문화예술대상 수상자 단체사진

제1회 대송문화예술대상

시각예술분야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수상

2025. 12. 3. KNN 공개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1회 대송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예술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KNN 센텀 사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재)대송문화재단 (이사장 이근철)이 주최하고 KNN(회장 강병중)과 국제로타리 3661지구 (총재 황인재)가 후원했으며, 행사에는 이근철 이사장과 강병중 회장, 황인재 총재, 장만영 한국로타리 총재단 의장을 비롯한 지역 예술문화인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 결과, 시각예술분야는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배

동준 사진작가가, 공연예술분야는 고인범 영화의전당 대표, 조영희 뉴아시아오페라단 단장, 김갑용 김진홍전통춤보존회 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로예술분야는 김충석 (사)월드엔젤피스예술단 이사장이 선정되며 첫 회 시상의 의미를 더했다.

대송문화재단은 시민들이 더 쉽게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예술문화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상설미술관 운영, 전시지원사업, 예술문화 소양 강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아울러 문화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2021년 설립 이후 올해 처음으로 대송문화예술대상을 제정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혔다.

이근철 이사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걸어온 예술문화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술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예술분야 수상자인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제1회 대송문화예술대상을 제정해 주신 이근철 이사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술인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부산예술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송문화재단은 향후에도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우수 인재 발굴과 예술문화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편집실

(왼쪽부터)부산예총 김경중 사무처장,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최정애 회장, 김두진(부산건축가회 회장) 부회장, 부산국악협회 강명옥 회장, 오수연 회장,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부산문인협회 박혜숙 회장, 부산무용협회 남선주 회장, 부산미술협회 최정락 회장



제18회 상해청년미술대전

이현도 신진예술상 新长宁艺术奖 수상

제18회 상해청년미술대전에서 부산 청년작가 이현도가 신진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부산작가 11명이 출품해 총 3차에 걸쳐 심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5명(김미영 신동기 정안용 이현도 홍지혜)이 선정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机·智-제18회 상해청년 미술대전'에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2025년 9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류하이수미술관(刘海粟美术馆)과 해조문화광장(海粟文化广场) D동에서 진행됐다.

이현도(b.2002)는 흔적으로 추상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강박의 해소'에서 출발하는 작업은 표면을 완벽하고

는가?' '동물은 야생 그대로 두어야 할까, 아니면 인간의 손길로 보듬어 보호해야 할까'와 같은 복합적인 질문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순수한 상상력과 이상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현실과 허구 사이에 적절히 배치해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완성한다.

신동기(b.1999)는 '달동네-달이 뜨는 동네'를 그린다. 도시에서 빈곤하고 낙후된 열악한 마을로 막연히 인식돼 온 달동네를 과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온몸으로 삶을 견뎌낸 이웃들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품은 공간으로 작품 속에 담



매끄럽게 만들려는 강박에 사로잡힌 자신의 태도를 내포한다. 패널 위에 색을 겹겹이 쌓아 올린 뒤 사포·그라인더·커터칼 등으로 갈아내며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는 과정은 결국 추상적인 흔적으로 완성된다. 작품은 시간과 몸의 움직임, 감각의 기록이다.

김미영(b.1986)은 자연과 동물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우리는 자연을 보존해야 할까, 보전해야 할까, 혹은 보호해야 하



- 1 이현도_Imposter Syndrome, 가변사이즈, Acrylic on Panel, Electric Grinding, 2024
- 2 신동기_서서히 잊혀가는 그 시대의 기억 #1, 90.9×65
- 3 김미영_생존과 멸종사이, 61×73cm, Mix media, 2024
- 4 정안용_이것은 연기를 붙인 그림입니다, 57×93cm, 향, 종이, 천을 태워 걸친 연기이미지, 2024
- 5 홍지혜_unintitled, invisible, performance documentation, 00080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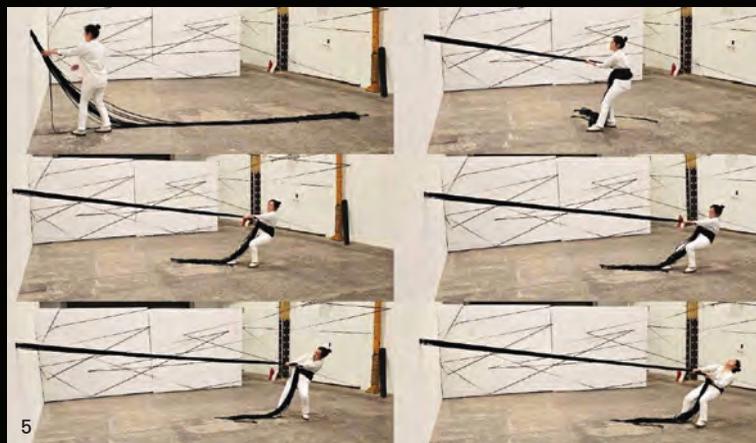


아낸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도시 경관 대신, 사라져가는 달동네의 풍경 속에서 따뜻한 경외를 느낀 작가는 먹과 한지, 채색 물감을 통해 그 기억을 재탄생시킨다.

정안용(b.1985)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에게 사라짐은 밝음과 어둠을 균형 있게 드러내는 요소다. 영원하지 않기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유하고, 사라짐의 이치가 있기에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시각 행위의 다채로움을 만들어 낸다. '연기를 모티브로 한 「이것은 연기를 붙인 그림입니다」에서는 암흑 속에서 홀연히 나타나 연기를 그려 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

홍지혜(b.1993)는 검정색을 사용한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작업은 구조에 대한 접근과 실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장소, 몸의 관계를 탐색한다. 벽돌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 경사진 통로에서 비스듬히 마찰력과 중력으로 버티는 스펀지, 공간을 가로질러 동선에 혼란을 주는 고무줄,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각목 등은 물성과 공간, 장소를 통해 보이는 것과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감각을 드러낸다. 설치작업뿐만 아니라 고무줄을 당기는 퍼포먼스, 엽서 드로잉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지금클래식(구. 영포레 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2025. 11. 12.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어린 시절 마음속에 고이 남아 있던 동화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따뜻한 잔향처럼 남는다. 11월 1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는 그 잔향을 다시 깨워 주는 무대였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 작업을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 단체 [지금클래식(구. 영포레 컴퍼니)]이 준비한 공연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클래식으로 재구성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상상력과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전해주었다.

공연은 바리톤 강태영의 해설과 함께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어진 1부 <피노키오 창작 음악동화>에서는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요정의 등장, 서커스 군단, 피노키오의 결심, 그리고 제페토와의 재회까지 피노키오의 서사를 다섯 개의 곡으로 엮어냈다. 클라리넷(권소민)·바이올린(이현우)·첼로(김하늘)·더블베이스(강유빈)·피아노(최인화)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조합은 이야기의 감정 변화를 관객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음악의 곁을 치밀하게 직조해 냈고, 동화가 가진 상상력은 클래식의 언어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었다.

2부 <성악과 함께하는 디즈니 음악>에서는 소프라노 류가은이 합류해 바리톤 강태영과

함께 디즈니 명곡들이 지닌 감동을 무대 위에 다시 펼쳐 보였다. <미녀와 야수>의 「Evermore」 「Beauty and the Beast」, <노틀담의 꼽추>의 「Out There」 등 익숙한 선율이 성악의 힘을 만나 한층 풍성하게 울려 퍼졌고, 객석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공감과 미소가 번졌다. 모든 무대가 끝난 뒤에는 앙코르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가 더해져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지금클래식은 엔딩까지 완성도 높은 흐름을 유지하며 관객에게 깊은 만족감을 남겼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이 동화와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무대였다. 지금클래식의 젊고 창의적인 시도는 관객의 동심을 되살리고, 일상 속에서 클래식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순간이었다.

글_박준영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가락 젓가락〉

2025. 11. 26.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경험과 문화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의 내적 경험을 공유하는 친숙함의 의미와 가치를 지녔다. [이바디예술단]은 음식과 관련된 '술가락, 젓가락'의 소재를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대입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 전 단체는 간이 팽과리를 관객들에게 나눠주며, 공연 내 소통을 예고하며 관객들의 흥미를 높였다. 첫 공연의 〈교차로(대고의 율림)〉는 무대 위 5개의 대고 연주의 흐름을 통해 깊고 넓게 퍼지는 북의 감정 깊이를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했다. 〈젓가락들의 행진〉에서는 솔로 팽과리 연주자의 리드에 맞춰 설장구 가락에 17명의 장구 연주가는 좌, 우 장단의 빠름과 느림의 다양한 박자와 추임새를 마치 바다의 파도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풍부한 표현의 흐름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술가락의 동행〉에서는 한국의 전통 북과 세계의 다양한 북들이 한데 모여 화합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징으로 시작해 고법, 풍물, 사물놀이, 무속 등 각 주제에 맞게 북이 가진 독특한 음색 전달과 서양의 드럼을 통

한 재즈 리듬이 하나의 이색적인 음악의 조화를 이뤘다. 이어진 〈술가락의 노래〉 〈술가락, 젓가락의 교차로〉부터는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로, 팽과리, 징, 장구, 북, 드럼, 태평소, 버나, 사자놀이, 드럼, 열두 발 상모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한편의 장편 마당극을 연상시켰다. 공연 중간 간에 팽과리를 가진 이들이 드럼, 북, 태평소와 민요 공연의 박자에 맞게 흥을 얹으며 동-서양의 융합적 공연을 펼쳤다.

사물놀이가 주는 특유의 성질은 연주자와 관객들이 주고받는 심적 교류와 갖가지 악기의 소리 향연이 어울려져 신명이 나는 순간, 이와 동시에 마음속의 무언가가 고동치는 감동을 전달한다. 단순한 신남이나 즐거움을 넘어서, 장단·호흡·에너지·공감이 하나로 엮이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한국적 정서와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2시간 30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이바디예술단의 풍물 공연은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예술의 소중함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의 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도 훌륭한 전통음악 잔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전승되기를 기대해본다.

글_백근영



2025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생활과 예술을 잇다 예술잇지

2025. 12. 4.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예술은 특정한 전공이나 이력으로만 완성되는 영역이 아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배우고 몸으로 익히며, 일상 속에서 누적되는 경험 또한 예술이 된다. '생활과 예술을 잇다'라는 부제를 내건 2025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예술잇지>는 이러한 인식을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증명한 자리였다. 공연은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배움의 결과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일반 시민들이 각자의 속도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 결과물은, 공유를 통해 예술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발표회는 전통음악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구성으로 진행됐다. 한국무용과 아랑고고장구, 웰빙댄스와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팡팡노래교실 등 각 프로그램의 수강생과 강사는 전문 공연 못지않은 완성도를 과시하기보다,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실력을 뽐내기보다는 예술을 통해 변화한 자신의 시간을 차분히 풀어내며 관객과



호흡했다. 사회자로 참여한 제해창역시 공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현장의 흥을 한층 끌어올려, 발표회에 생동감을 더했다. 무대 전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예술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출연자들의 연령과 배경은 제각각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발표회는 예술아카데미가 지향해 온 '생활 속 예술' '시민과 예술의 접점'이라는 가치가 실천의 형태로 구현된 장이었다. 예술아카데미 수

강생을 대표해 팽팡노래교실 수강생 두 명의 이야기를 들

어보았다. 팽팡노래교실 이금희 회장은 “처음에는 참여 인원이 적어 고민이 많았지만, ‘회원 170명을 모으면 평생 말짚다’는 각오로 시작했다”며 노래교실을 이끌게 된 계기를 전했다. 현재 약 170명의 회원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켜주며 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섬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 이옥임 역시 노래교실을 “50대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발견하게 해 준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다양한 취미를 경험했지만, 노래만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회관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며,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이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덧붙혔다.



〈예술잇지〉는 예술을 배우는 일이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일상의 연장선임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날 무대는 완성된 예술보다 지속되는 예술,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한 시간으로 남았다.

/ 편집실

1 한국무용(기초반) 2 한국무용(심화반)
3 팽팡노래교실 4 라인댄스 5 아랑고고장구

2025 부산건축가회 추계건축탐방



하우스노웨어 성수

도시는 늘 제각각의 속도를 가진다.

부산이 바다의 바람을 따라 여유롭게 흐른다면, 서울은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포개지며 실 틈 없이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낸다. 이번 추계탐방의 목적은 그 빠른 변화 속에서 “건축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새로 쓰는가”라는 질문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데 있었다.

우리가 찾은 장소들은 미술관,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그리고 오래된 건축유산을 새롭게 활용한 공간까지, 성격도 모습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그 속을 걷다 보니, 각 공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시와 사람을 잇는 건축의 언어’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떤 곳은 남겨진 흔적을 통해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고, 어떤 곳은 빛과 형태의 절제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며, 또 어떤 곳은 브랜드의 세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건축이 사람의 시선과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여정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건축물들은 저마다의 표정과 리듬을 품고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가며 도시의 걸을 읽어냈다.

이제, 그 발걸음을 따라 각 장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클.이예원 건축가

Fiction Non Fiction — 오래된 공간이 들려준 도시의 기억

견지동의 골목 끝에서 마주한 작은 근대 건물, 1936년에 지어진 구영숙 소아과는 오랜 시간 동네의 삶을 지켜온 장소였다. 지금 이곳은 구가도시건축 25주년 전시 'Fiction Non Fiction'의 전시장이 되어, 다시 한번 도시의 기억을 품어내고 있었다. 붉은 벽돌과 드러난 트러스 구조는 오래된 시간의 결을 그대로 보여주며, 구가도시건축이 추구해 온 '삶 가까운 건축'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전시는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층에서는 25년간 이어온 수요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길과 집, 골목의 작은 풍경 같은 도시의 사소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2층에서는 답사에서 발견한 '삶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가도시건축의 실제 작업들이 전시되었다. 한옥의 재해석, 마당 중심의 생활 방식 등, 건축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가 고요하게 드러났다. 3층에서는 개인을 넘어 지역과 공동체로 확장되는 공공적 기록이 이어졌다. '교회가 보이는 한남동' 프로젝트나 공공건축 사례들이 구가도시건축의 다음 방향을 말해주는 듯했다.

전시를 마무리하며 소장님은 이번 전시가 결국 '기억을 유지하고, 그 기억을 통해 삶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도시가 빠르게 변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묻는 말처럼 들렸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전시장을 나오며 다시 본 붉은 벽돌은, 과거의 흔적을 넘어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느껴졌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도시의 틈을 열어주는 공공의 마당

용산의 빠른 도시 흐름 속에서도 이 건물은 비교적 느린 리듬을 유지한다. 대규모 매스가 명확한 선과 면을 이루며 서 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주변 소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공간의 공기가 정돈되는 느낌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저층부의 공공공간은 건물의 규모와는 다르게, 사람의 이동과 체

류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계획된 공간으로 보였다. 저층부로 진입하면 넓게 비워 둔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건물은 여러 번 지나쳤지만, 저층부 공간은 방문할 때마다 다시 살펴보게 된다. 넓은 비개방 공간은 단순한 출입구 이상의 역할을 하며, 도시 흐름과 건물 내부 프로그램 사



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절제된 구성 방식 속에서 이 여백은 건축의 긴장감을 낮추고, 방문자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건물 깊은 곳으로 안내한다.

결국 이 건물의 핵심은 도시를 강하게 주장하는 건축이 아니라, 도시·이용자·전시 프로그램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공공공간의 조율력에 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예술을 담는 장소를 넘어, 건축이 공공성과 문화적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건물 아래의 열린 공간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이엠커피 신사라운지 — 겹겹이 쌓인 실내 도시의 구조

거리에서 바라본 제이엠커피 신사라운지는 일반적인 상업 건물의 외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서

면 건물의 인상이 달라진다. 층마다 확보된 다른 높이의 공간, 수평·수직으로 교차하는 시선, 그리고 소규모의 방처럼 나뉜 구역들이 적층되며 수직으로 쌓인 작은 도시 같은 구성을 이룬다. 외형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건물의 장점은 내부에서 나타난다. 목재, 밝은 타일, 금속 손잡이와 같은 재료 간 대비가 선명하며, 창외 크기와 개구부의 깊이 차이가 방문자의 머무름을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이처럼 제이엠펙퍼 신사라운지는 외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상보다 훨씬 복잡한 내부 구조를 품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공간이 작게 나뉘어 있으면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단일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층적인 체류 경험을 만들어낸다.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 자체가 건축적 밀도를 높이며 방문자의 동선을 세심하게 유도한다. 이것은 단순한 카페의 구성에서 벗어나, 일상적 스케일의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성과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수동 — 과거와 실험이 동시에 드러나는 도시 단면

성수동의 거리는 오래된 공장 건물과 새로운 브랜드 플래그십이 서로 다른 박자로 겹치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벽돌 창고가 과거의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곡면 외피나 무거운 콘크리트 박스가 강한 조형성을 앞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낮은 창고가 시야를 낮추다가, 코너를 돌면 갑자기 큰 매스가 시야를 넓히는 식으로 공간의 리듬이 계속 바뀌었다.

이 지역의 건물들은 서로의 성격을 지우기보다, 오히려 대비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오래된 구조를 재사용한 공간은 지역의 기억을 이어놓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성수동이 실험적 건축을 수용하는 장소임을 보여주었다.

걷는 동안 느껴지는 이 묘한 혼합은 성수동만의 도시적 긴장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디올 성수와 템버린즈 성수 같은 건축적 '장치'들은 그 흐름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는 지점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하우스노웨어 성수 — 조형성과 구조가 한 덩어리로 결합된 매스

성수 거리를 걷다 보면 익숙한 공장 건물들 사이로 갑자기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있다. 하우스노웨어 성수는 그중에서도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었다. 멀리서 봐도 단순한 형태가 아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거리에 놓여 있는 듯한 인



제이엠펙퍼 신사라운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절제된 구성 방식 속에서 이 여백은 건축의 긴장감을 낮추고, 방문자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건물 깊숙한 곳으로 안내한다.

상이 먼저 다가왔다. 표면은 매끄럽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고, 길게 이어진 수평 슬릿창이 건물 전체에 일정한 호흡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부가 둥글게 부풀어 오른 형태라서, 단단한 재료를 쓰고 있음에도 묘하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길을 걷다가 아래에서 올라다본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상부의 콘은 선들과 하부의 부드러운 곡선이 대비되며 건물 전체가 두 가지 표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출입구 전면 바다의 흰 자갈과 투명한 유리는 콘크리트 벽과 대비를 이루며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요소였다.

하우스노웨어 성수는 특별한 장식 없이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물이었다. 성수의 산업적 풍경 속에서 이 건물은 하나의 커다란 오브제처럼 서 있었고, 거리의 흐름 속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간 많은 건물 사이에서도 유독 오래 기억에 남은 이유는, 이 단순한 형태 안에 담긴 독특한 균형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산건축가회 단체사진

마무리

이번 추계탐방은 여러 건축물을 단순히 나열하듯 살펴본 일정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거의 흔적을 어떻게 품고 또 다른 변화를 받아들이는지를 직접 확인한 시간이었다. 각 장소는 프로그램과 모습이 다르지만, 형태와 재료,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 속에서 도시와 관계를 맺는 고유한 태도를 보여줬다.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공간이 어떤 기억을 이어가고, 어떤 변화를 수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비교하며 걸을 수 있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방식,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는 방식, 그리고 공공적 여백을 마련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접근이 한 도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이 지닌 복합적인 건축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건축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과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여정은 이러한 시선으로 서울의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다시 바라보게 했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도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쓰임을 시도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다 깊고 차분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부산건축가회에 감사함을 느낀다.



아모레퍼시픽 저층부 공공공간

여성국극 <가야산 연가>

제11회 부산국악축제Ⅱ 2025. 12. 7.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 근현대 공연예술사에서 '여성국극(女性國劇)'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 여성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며 민중의 감정과 공동체의 희망을 예술로 승화시킨 송고한 유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가 선보이는 제11회 부산국악축제Ⅱ 여성국극 <가야산 연가>가 12월 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전체 내용은 현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과 인내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남매의 고대 설화를 가무악극(歌舞樂劇)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했다. 본 공연은 여성국극의 예술적 정체성과 미학적 깊이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대사회 속 인간과 세대 간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적 정의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찬바람이 제법 옷깃을 스미는 겨울의 문턱에서 공연장 주변은 시작 전부터 많은 관객들로 붐비며, 공연에 대한 기대에 찬 온기들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두운 조명에서 막이 오르자, 음악 창극반주단 [홍향(紅香)]의 북·장구 연주와 피리 소리에 맞게 무대에서는 선녀들이 안무를 추며, 극 서두 내용을 노랫가락으로 알렸다. 고구려 시대 충신 가문이 모함으로 역적에 몰락한 상황, 가야산 산속에서 주인공 남매인 마달과 아사달의 시련과 극복의 일대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사회 속 정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을 소재로 다뤘다. 여성이 남녀 배역을 모두 소화하고 판소리와 연극이 결합된 공연을 처음 봤기에 다소 생소하였으나, 무대와 객석이 가깝고 단출한 만큼 배우가 느끼는 감정과 대사, 몸짓 등이 바로 전달되어 생동감을 느

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각 복식과 상황 속 배경으로 사용되는 영상은 웅장하고 화려함보다는 적절히 분위기를 조화롭게 이루며, 오롯이 시놉시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충실히 보조를 이어갔다. 그리고 인물 간 대화 형식에 중간 독백을 장단에 맞춰 창(唱)으로 소화하며, 국악의 장점을 적절히 녹여냈다. 막을 마무리하는 지점마다 적절히 들어간 춤사위와 반주는 내용 간 극적 전환을 시키며, 연대적 흐름을 잘 표현했다. 하지만 몇 장면은 배우의 대사 실수와 동선에서 연결성이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표현되어 극 전개의 몰입도를 저해했다. 약 120분 정도 되는 긴 호흡의 극에서 종종 험겁게 느껴지는 이러한 길도는 부분은 무대 위 상징과 대비하여 얼마나 관객을 설득했을지 미지수로 남았다. 그럼에도 주요 역할인 수리 역의 신소연, 아사달 역의 엄영진, 마달 역의 허애명, 모란 역의 신나예, 대마로 역의 박소윤, 대영 역의 김명숙 배우들의 신구(新舊) 공연 조화 속 노련미와 신





선함은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 설화의 풍류를 무대에서 펼쳐내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였다.

여성국극은 한국의 전통 극예술의 한 갈래로, 판소리와 연극을 결합한 공연 형태를 취한다. 전통음악과 판소리, 연극, 춤이 융합된 형식은 타 장르와 차별성을 가진 동시에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성적인 연출이 더해진다면 현대적 감각을 부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예술 장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점 여성국극은 지정 국립단체도 없으며, 이전 주력 세대는 이미 노쇠화했으며, 창작 기반도 부실하다. 어떻게 이 열악한 출발 조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여성국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최근 웹툰과 드라마의 힘으로 대중들에게 그 존재를 재부각시키며, 재도약의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미 한 뿌리에서 나온 창극이 진화와 변신을 이뤄냈으며, 여성국극 역시 변화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에 맞는 최적화된 '텍스트'와 '연출'이다. 이는 여성국극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과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결론에 근접할 수 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중이 원하는 지점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직은 미진하나마 새로운 창작의 끊임없는 도전적 측면에서 본 <가야산 연가> 공연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글 백근영

2025 국악은 힐링이다 이나영 설레임 IV

2025. 12. 7.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연악당

국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전통'일 것이다. 전통은 국악의 뿌리이자 정체성이지만, 그 의미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통의 토대 위에서 시대와 호흡하고 다른 장르와 만날 때, 국악은 현재의 삶을 어루만지는 음악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악은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다. '국악은 힐링이다'라는 주제를 내건 <이나영 설레임 IV>는 국악이 지닌 따스하고 평온한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차분하게 풀어낸 공연이었다.

공연의 문은 [이나영 우리소리국악단]이 선보인 「선유가」로 열렸다. 이나영을 중심으로 31명의 단원이 함께한 무대

는 12잡가 중 하나인 「선유가」가 지닌 정서를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물놀이와 뱃놀이, 남녀의 연정을 노래하는 선유가는 단원들의 밀도 있는 합과 안정적인 소리 운용 속에서 연악당을 가득 채웠다. 다수가 함께 만들어낸 소리는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모여, 공연의 출발점으로서 충분한 무게감을 형성했다.

곧바로 김용태·정태효·김용명·현정환이 무대에 올라 「노랫가락」, 「닐리리아」, 「양산도」를 들려주며 경기민요의 정취를 이어갔다. 지역적 특성이 살아 있는 경기민요는 친숙한 선율과 경쾌한 장단으로 관객과 무리 없이 호흡했고, 소리꾼들





의 안정된 발성과 여유 있는 표현은 공연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중반부에는 국악 무대에서는 다소 낮은 댄스스포츠가 더해지며 분위기에 변화를 주었다. 국악 무대와 라틴 댄스의 만남은 장르 간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내며, 관객에게 또 다른 감각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후 무대는 다시 국악의 결로 돌아와 「선소리 산타령」을 선보였고, 객석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든 「엄마꽃」과 「엄마아리랑」이 이어졌다.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감사는 장르를 넘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한 보편적인 감정이다. 평소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나영은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냈고, 엄선미의 무용이 더해지며 무대의 진정성은 자연스럽게 관객의 공감으로 번져갔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나오며, 이날 공연 가운데 가장 깊은 공감을 끌어낸 순간으로 남았다. 이러한 여운을 뒤로 하고 무대는 박재이·박조이의 「너영나영」과 「군밤타령」으로 경쾌하게 전환됐다. 최연소 출연자인 두 사람은 작은 체구에서도 또렷하고 힘 있는 발성을 들려주며 객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해맑은 표정으로 공연장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었다. 슬픔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이 무대는 공연의 흐름에 생동감을 더했다.

이후 다양한 민요와 잡가가 뒤따르며 무대는 정서의 폭을 한층 넓혀갔다. 삶이 희로애락을 담은 노랫말과 소리의 곁은 과장 없이 담담하게 전달됐고, 전통음악이 지닌 힘은 각 곡의 성격에 맞춰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났다. 공연 후반에는 「꽃타령」 「노들강변」 「이별가」 「태평가」 등 지역과 시대를 넘나드는 곡들이 차례로 이어지며 무대의 밀도를 더욱 풍부하게 채웠다. 각각의 곡은 독립적인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려, 긴 러닝타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판굿」과 「벚노래」가 더해지며 공연은 힘 있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맞이했다.

〈이나영 설레임 IV〉는 국악의 전통 소리가 지닌 본연의 힘과 그 확장 가능성에 집중한 무대였다. 다양한 장르와 세대가 한 무대에 오르며 다채로운 접점을 시도했지만, 공연의 중심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힐링’이라는 주제 또한 감각적인 과장에 기대지 않고 잔잔한 호흡 속에서 구현되었다. 이날 무대는 국악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예술이며, 오늘의 관객과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음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글_박준영



국내 작가 초청강연_김홍신(소설가, 삶의향기동서문학상 운영위원장)

세계문학을 건너 한국문학으로 2025 부산글로벌문학섹션

2025. 11. 19. ~ 2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3년간 이어온 부산국제문학제가 2025년부터 세계적 비전에 부응해 '부산글로벌문학섹션'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세계문학을 건너 한국문학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필리핀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 9개국의 작가와 연구자가 참여하며 국제 문학 교류의 폭을 넓혔다. 유학생 토론회, 세계 시 낭독과 해설, 해외 초청 기조강연, 국제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문학의 흐름과 한국문학의 확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소설가 김홍신의 초청 강연 '인생과 문학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해석'은 문학의 본질과 삶의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김홍신은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며, 문학이 삶을 견디는 힘이자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임을 전했다. 그는 문학을 말의 꽃이자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바꾸는 문명으로 정의하며, 글쓰기는 자

기 치유이자 화해, 용서와 사랑, 나눔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나무처럼 살라는 메시지를 통해 비우고 내려놓는 삶의 지혜를 전하며, 문인은 글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 속에서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은 사회에 문학이 다시 건강과 자유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했다.

국제학술세미나 '글로벌 문학을 한강 작품에서 찾다'에서는 한강 문학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이 이어졌다. 문선영(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은 한강의 사랑을 윤리적 태도로 해석하며, 시적 산문이라는 문체적 특성과 감각의 미학을 통해 상실과 회복의 시간을 분석했다. 송호림(국립부경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채식주의자』를 자크 라캉의 순수 욕망 개념으로 접근해, 익숙함 너머의 실재와 낯설이 독자에게 던지는 충격을 설명했다. 다니엘 제임스(미국, 경성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응시와 침묵, 반항의 관점에서 여성 자아의 해체를 분석하며, 정상성과 순응 속에 숨은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번 부산글로벌문학섹션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교차하며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부산이 글로벌 문학 교류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문의_051)632-5888 / 편집실

국제 학술 세미나 (왼쪽부터)문선영, 구모룡, 다니엘 제임스, 송호림 교수



김정원의 춤 열세 번째 이야기

춤으로 흥으로 한판 놀음

2025. 12. 13. 오후 6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연악당

〈김정원의 춤〉은 [춤소리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원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정기공연이다. 열세 번째 무대인 이번 공연은 '춤으로 흥으로 한판 놀음'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춤이 지닌 신명과 흥을 네 개의 장으로 풀어냈다. 전통춤의 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각 지역과 춤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엮어, 한판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1부는 〈하늘의 혼 - 승화된 신명〉이라는 부제로 공연의 문을 여는 장이었다. 이 장에서는 남도 해안 지역의 춤인 〈남도소고춤(김평호류)〉,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학춤〉, 그리고 경기도 무형유산 광명농악 중 〈상공춤(임용수류)〉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춤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김평호가 재구성한 〈남도소고춤(김평호류)〉은 절제된 호흡과 단정한 춤사위로 남도 춤 특유의 기품을 드러냈다. 소고의 리듬은 과도하게 치닫지 않으며, 하늘을 향해 차분히 쌓아 올리는 신명의 출발점으로서 1부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열었다. 이어진 전승교육사이광호가 재구성한 〈동래학춤〉은 학의 동작을 형상화한 여유로운 몸짓과 여백 미학으로 무대의 분위기를 전환했다. 흰 도포자락이 만들어내는 선의 흐름과 절제된 동작은 고고한 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



여주였다.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상공춤(상공수류)>은 농악의 역동성을 전면에 내세운 무대였다. 빠른 장단과 활발한 동작, 그리고 집단의 에너지가 응집되며 무대는 다시 생동감으로 채워졌다. 이는 하늘의 혼이 개인의 몸짓을 넘어 공동체의 신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며, 이후 전개될 공연 전체의 흐름을 힘 있게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2부 <땅의 혼-역동의 몸짓>에서는 영남과 호남 지역의 지역색이 뚜렷한 춤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영남교방무>와 <진도북춤(백병천류)>은 서로 다른 미학을 지니면서도, 강한 리듬과 몸의 탄력을 바탕으로 공통된 에너지를 발산하며 '땅의 힘'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영남교방무>는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기운이 교차하는 춤으로, 영남 지역 <허튼춤>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무대였다. 김정원이 박경란 선생의 춤을 재구성한 이 작품은 화려함 속에서도 단아함을 잃지 않으며, 정·중·동의 균형이 또렷하게 살아 있는 춤사위를 보여주었다. 절제와 확장의 리듬이 교차하며 몸의 선과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어진 <진도북춤(백병천류)>은 북가락과 춤사위가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역동성이 인상적인 무대였다. 이경화 선생의 지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 작품은 북의 울림 속에서 긴장과 해소의 구조가 분명하게 형성되며, 무대 위에는 높은 집중력과 생동감이 공존했다.

3부 <바람의 혼-희망의 어울림>에서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무용농악>과 <버꾸춤(서한우류)>이 무대의 중심을 이루었다. 농악 특유의 거친 에너지와 공동체적 리듬은 무대 위에서 한층 응집력 있게 구현되었고, 다양한 악기 소리와 역동적인 움직임이 겹쳐지며 풍성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전통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되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무대 언어로 재구성된 농악 춤은 관객에게 활력을 전하는 동시에, 바람처럼 확산되는 희망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4부 <신명의 혼-춤으로 흥으로>는 이날 공연의 제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장이었다. 김정원이 선보인 <소고춤(권명화류)>은 영남 지역 춤이 지닌 해학성과 투박한 미감을 고스란히 살려낸 무대였다. 김정원이 재구성한 이 소고춤은 투박한 힘과 섬세한 여성미가 공존하는 춤사위로, 다른 소고춤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며 공연의 흐름을 흥으로 단단히 수렴시켰다. 무대는 자연스럽게 한 판의 놀음으로 이어졌고, 흥과 춤이 직결되는 순간 속에서 관객 또한 그 흐름에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끝을 맞이했다.

<김정원의 춤 - 열세 번째 이야기>는 신명과 흥을 단순한 감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늘·땅·바람·신명으로 이어지는 서사 속에서 풀어낸 무대였다. 전통춤의 계보와 전승을 충실히 짚어가면서도, 오늘의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된 점은 김정원의 춤이 지닌 지속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한판의 놀음처럼 흘러가며, 전통춤이 옛것을 지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더해가며 나아가는 예술임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한 자리였다.

글_박준영



‘예술의 흔적’ 두 번째 이야기

예술의 흔적은 부산예술을 이끌어온 원로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세월 현장에서 갈고닦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부산예총 산하 9개 협회의 원로예술가 17인을 인터뷰해 영상을 기록하고,

『예술부산』 지면을 통해 아카이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25.11.vol.245/2026.1.vol.247)

인터뷰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가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각 장르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 그리고 후학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한 원로예술가는 “작품에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의미가 되어 후대의 젊은 예술가들이 그 흔적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취를 남겨야겠다”고 다짐한다.

눈이 소복이 쌓여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길 위에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가 펼쳐지리라 기대해 본다.

1월호에는 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예술·음악 장르의 원로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록 정리 편집실

예술의
흔적



안유환_문인

- 소설가
- 수필문학(수필 1997), 한국동서문학(소설 2012)
- (사)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역임
- 광나루문학상 외 다수 수상

처음에 수필을 쓰기 시작했고, 우연히 시를 접하면서 창작의 폭이 넓어졌다. 더 잘 써 보고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매력에 빠졌다. 그 결과 소설집 세 권과 장편소설, 수필집, 시집까지 출간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술가가 유행에 휩쓸리면 변화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예술가는 자유의지와 정체성을 지키는 존재여야 한다. 미켈란젤로와 단테가 인간의 내면과 사랑, 자연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하며 문예 부흥을 일으켰듯, 오늘의 시대에도 예술가가 새로운 문예 부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전은 긴 세월 동안 문학적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당시의 문화와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며, 오늘을 사는 작가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준다. 스탕달은 소설을 거울에 비유했고, 움베르토 에코는 현미경이라 말했다. 소설은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시각적 예술이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지속성이다. 쓰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 없다. 끊임없는 퇴고가 필요하고, 늘 꿈꾸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경수_문인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 수필가, 시조시인
- 수필문학(수필 2005)
- 수필문학 부산작가회 회장 역임 등
- 부산예총 공로상 외 다수 수상



1988년 고하 최승범 선생의 지도를 받아 전북문학에 시조를 발표하며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길동인 동인잡지를 창간해 올해로 30호를 발간했다. AI는 인간이 생산해 온 문화적 콘텐츠를 집적한 도구다. 최근 한 지인의 수필집에서 AI를 활용한 자평을 보고 흥미로웠지만, 전문 평론가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AI는 예술 발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창작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한정적이기에 이를 넘어서기 위해 여행을 권한다. 낯선 공간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경험이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며 더 나은 세계와 행복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읽기 시작하면 어느새 끝까지 빨려 들어가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이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써 내려가는 태도가 작가에게 가장 중요하다.



최원철_문인

- 시인, 수필가
- 문예시대(시 1966), 수필시대(수필 2009)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이사, (사)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 부산문학상 외 다수 수상

문학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AI, NFT 등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의 기원은 시조에 있다. 전통이 계승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늘날 많은 창작이 거기에 국한되면서 시적 표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 젊은 작가일수록 과학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통찰력 있게 접근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려는 시각이 요구된다.

또한 문학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현시대에 맞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부산은 여러 분야의 인재들과 교류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김기남_미술

- 개인전 7회
- 보훈병원 60점 기증 및 회고전
- 부산미술50년전, 창작미술 38회, 밀알전, 서울영도회 20회 출품
-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회, 신사회, 밀알회, 형맥회 등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NFT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감정 블록체인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을 구현하며, SNS NFT를 통해 감정의 영역을 온라인 세계로 확장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예술가에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연성, 예술적 정체성의 균형, 지속적인 학습과 호기심, 공동체 네트워크의 가치, 실패와 마주하는 용기 등이 요구된다. 시각 언어의 변형을 통해 색채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반전시켜 마음 온도를 전달하고, 꿈속 장면처럼 서사를 구성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대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혼자 걷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공존의 사회가 필요하다. 불꽃이 닿는 자리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태어나듯, 예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현실로 확장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병일_미술

- ▣ 부산시문화상, 봉생문화상 수상
- ▣ 부경대학교학술상, 부산시교육감상 수상

국립 부경대학교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디자인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I는 창작의 일부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확장해 주는 새로운 도구로 가능하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NFT가 창작자의 권리와 소유권, 거래 방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톨과 플랫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태도다. 이 과정에서 감성의 차별화가 더 요구된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협업과 지식 공유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예술가들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을 민감하게 포착하며 창의적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디자인은 문화의 언어이다. 형태를 만드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을 지닌 만큼, 국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



김동준_사진

- ▣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사진디자인 전공)
- ▣ 대동대학교 뷰티아트계열 사진학 겸임교수 역임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자문위원
- ▣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
- ▣ 부산국제사진제 고문
- ▣ 부산사진교실 대표강사

사진영상학을 전공한 뒤 대동대 멀티뷰티아트계열에서 사진 겸임교수로 강의했으며, 부산인재개발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도 20

년간 사진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에는 필름카메라 시대였다. 1984년 액트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86년부터는 사진 촬영대회 지도위원으로 전국을 다니며 활동했으며 현재까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AI 등 온라인 기반 플랫폼은 아직 생소하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 사진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작가의 시선과 철학을 차별화해 도구를 활용한다면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입 이후 사진은 이미지를 '찍는' 예술에서 '만드는' 예술로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와 결합한 사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을 시작할 때는 먼저 카메라로 찍고, 다음에는 발로 찍고, 눈으로 찍고, 머리로 찍고, 마지막은 가슴으로 찍을 줄 알아야 한다.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사진의 역사를 공부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작가 정신과 주제를 명확히 설정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철민_사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자문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역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지회장 역임
- 부산남사회 지도고문, 부산남구문화원 이사, 부산시인협회 회원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사진가들은 NFT를 통해 작품의 소유권을 발행함으로써 국경 없이 개방된 시장에 진입하고 다양한 컬렉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면 작품이 소비재처럼 변질될 수 있기에, 예술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창작자들과 협업하며 유연하게 소통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진은 이제 촬영과 이미지 제작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보다 작가의 콘셉트와 비전이 핵심 가치로 자리한다. 사진은 더 이상 단일 매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회화·영상·설치·퍼포먼스 등과 융합해 음악적 움직임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형태의 예술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진가의 눈이 세상을 어떻게 읽고 바라보는가가 작품의 본질이다. 감각을 날카롭게 단련하고, 사물의 숨결까지 듣는 마음가짐으로 스토리텔링을 담아낼 때, 사진은 긴 호흡의 예술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십여 년 동안 연극배우로 살아왔다. 연극은 사람이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대를 통해 많은 관객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연극은 진실성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오늘날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민주주의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연극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연극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예술이며, 무대 위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함께 빛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연극은 과정 자체가 어려운 예술이다. 내 인생을 걸 만큼 연극이 하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쉽게 생각하면 조금 힘들고 고단해지는 순간 금세 포기하게 된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결국 끝까지 해내는 힘이다.

박찬영_연극

- 부산시립극단 창단멤버, 수석단원 역임
- 하나다페스티벌 상임고문
-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예술감독
-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장
- 제9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 제17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최우수남자연기상 외 다수 수상



김재국_연예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기획위원장으로서는 각종 행사와 기획을 맡아 왔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33년째 노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지도와 예술 현장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예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흐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예술가로서의 진정성과 감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은 표현을 돕는 도구일 뿐, 예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예술가는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며, 예술의 깊이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중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디스코 리듬과 EDM 등 전자 음악을 접목해 더욱 젊고 신나는 스타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 본다. 음악은 시대와 함께 변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열정과 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시대를 이끌어가기 기대한다.



노명호_연예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가수위원회 위원장

1967년 지그레코드사에서 「내가 또 왔어」로 데뷔했다. 현재는 매년 홀로 어르신을 위한 어울림 행사인 <효 한마당>을 35년째 개최하며 무대에 서고 있다. 또한 각종 가요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권에서 활동 중인 900여 명의 가수 회원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예술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케이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음악은 이미 세계 음악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동시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중가요 음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헌신하며, 밝고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차성연_연예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감사

1980년 [현철과 별떼들]의 첫 멤버로 시작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아줌마는 살아있다」로 활동 중이다.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예술가는 유연하게 적응하되,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계발, 대중과의 소통, 겸손한 태도와 협력의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문화의 성숙도 또한 높아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트로트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력을 꾸준히 갈고닦는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질 것 이므로 후배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 특히 자기 목소리와 개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겸손과 협력의 자세로 나아가간다면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향후 음악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이일구_음악

- ▶중앙대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원 졸업
-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리스트 단원 역임
- ▶첼리스트로서 바로크음악 연주단체를 1986년 국내 최초로 창단
- ▶20여 년간 국내외 순회연주 등 연주회 개최
- ▶첼로곡, 첼로교차본, 트리오집, 실내악곡 등 36권 출판

오랜 세월 첼로 연주와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서양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 유학 시절, 서양 음악의 뿌리인 바로크 음악에 매료되어 바로크 첼로 연주에 도전했고, 귀국 후에는

한국바로크음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사람의 감정, 즉 심장 박동과 함께 음악을 느끼고 연주하는 행위는 그 어떤 기술이나 기계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음악인 인구가 줄고 현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국내 음악계는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정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물질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예술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한다.

전이순_음악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밀라노 국립음악원(G. Verdi Conservatorio) 졸업
- ▶ 서울국제음악제 오페라 〈시집가는 날〉 (한국 초연) 주역 출연
- ▶ 이탈리아 티토스키파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르 다수 입상
-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최근 한국 성악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오페라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소리와의 접목, 무대·미술·영상에 결합한 실험적 공연이 활발하며, 케이팝과 클래식의 융합, 카페·시장·공원 등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페라를 접해보지 못한 관객에게 접근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변화다. 한국 성악가들이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큰 성취이다. 한국 성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둘째, 교육과 지역 공연을 통해 성악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하는 것이다. 세계와 깊이 연결되면서도 우리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성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과 감정을 담은 예술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며 배움과 소통, 겸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AI는 작곡과 편곡, 가사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예술의 핵심은 인간의 감성과 경험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예술만이 관객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 성악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가곡 등 클래식 성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는 크로스오버, 팝페라, 뮤지컬 등으로 장르가 확장되어 젊은 성악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성악계는 AI 기반 콘텐츠 플랫폼과 장르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성악과 민요·판소리의 접목, 아리랑과 바흐의 아리아를 연결한 연주, 성악과 무용·미디어아트 결합 공연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을 위한 새로운 장르 확대도 필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전통 클래식 성악을 함께 지켜 나가는 균형이 중요하다. 음악인들이 전통적 기반 위에서 AI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더 깊고 아름다운 감동의 음악을 창조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폭넓은 음악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남식_음악

- ▶ 이탈리아 F. A. Bonporti 국립음악원 졸업
- ▶ 이탈리아 I. D. M. A. 아카데미 졸업 및 Valsesia 아카데미 수료
- ▶ 러시아 Magnitogorsk 국립음악원 수학 및 오크스티라 Vienna 마스터코스 수료
- ▶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이태리음악연구회, 부산교회음악협회 회장,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역임
- ▶ 한국음악상, 부산음악상, 부산예총공로상 수상
- ▶ 현) 부산원로음악가회 회장



감악산 일출

새벽녘 짙은 운해를 뚫고 산봉우리들이
섬처럼 솟아 있다.
이제 막 솟아 오른 태양의 황금빛 햇살이
차가운 안개를 물들이며
섬처럼 솟은 산마루 위로 천상의 빛을 쏟아내며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비춘다.
숨이 막혀 오며 웅장한 아침이
고요 속에 시작된다.

글 사진_ 박병탁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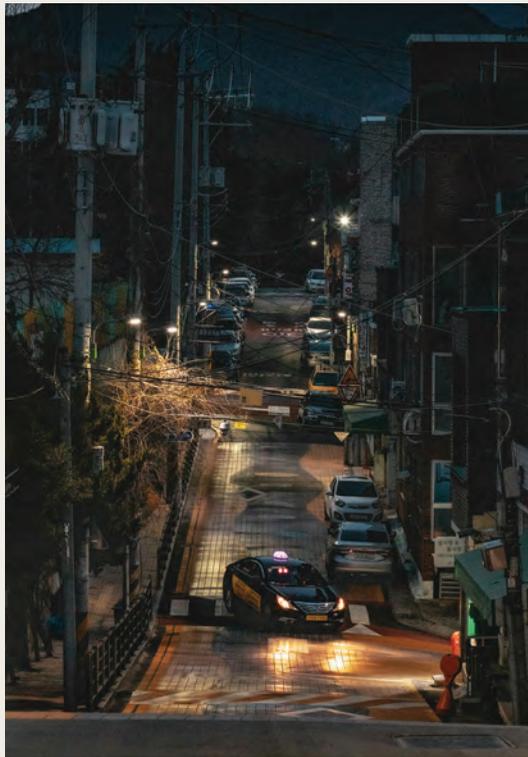






낮선 풍경이 건네는 말들

삶이란 하나의 문을 닫고, 새로운 풍경의 문을 여는 일이다. 아파트 단지를 떠나 부산의 가파른 주택가로 이사 오던 날, 나는 익숙한 삶의 지형이 뒤바뀌는 경계에 서 있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던 아파트와 달리, 이곳은 모든 이의 삶이 밖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서로의 차마를 빌려 지붕을 누인 집들처럼 사람들의 마음 또한 타래지어 얽혀 있었고, 이방인인 내게 쏟아지는 그 낮선 관심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무겁고 낡은 외투처럼 거추장스러웠다.



그 관심이 불러온 첫 번째 시련은 다름 아닌 주차 문제였다. 주택가에서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마을 울타리의 한정된 영토를 두고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의 서막이었다. 집 근처 작은 공터는 매일 밤 주차 쟁탈전이 벌어지는 은밀한 전장이었고,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골목을 헤매는 헤드라이트의 행렬은 이곳의 숨 가쁜 질서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운 좋게 한자리를 찾아 차를 밀어 넣었지만, 복병은 가파른 경사였다. 거센 밤바람에 밀린 차문이 옆 트럭의 옆구리를 무심하게 툭 쳤다. 어둠에 가려진 탓에 그저 가벼운 '문콕' 정도 겠거니 하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아침, 창밖의 웅성거림에 이끌려 나간 주차장에서 어제의 안일함이 남긴 생생한 흔적과 마주했다. 가벼운 '문콕' 정도일 거라던 내 짐작을 비웃기라도 하듯, 트럭의 옆구리에는 깊은 자국이 패어 있었고 그 위로 내 차의 페인트 자국이 선명한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밤새 분 강풍 탓이라 변명하고 싶었으나, 나를 응시하는 이웃들의 시선 앞에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보다 더 묵직한 자책이 뒷덜미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그때 구경꾼들 사이로 노련한 걸음 하나가 성큼 들어왔다. 이사 첫날, 서툰 이방인을 묵묵히 돕던 트럭 주인이자, 건설 현장의 맥박을 조율하며 거친 노동의 하루를 밀어 올리는 이 마을의 '반장'이었다.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앉은 그의 창고 아지트에는 굳은살 박인 손으로 하루를 일궈가는 이들의 복적이는 온기가 늘 배어 있었다.

깊게 패인 트럭의 상처 앞에 미안함이 커진 내가 정중히 사과하며 수리비를 청구하시라 했으나, 그는 호탕한 웃음으로 손사래를 쳤다. 그 웃음에는 내가 준비한 모든 변명과 오해를 단숨에 흘뜨리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경사가 심한 이곳보다 차를 대기 좋은 다른 장소까지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기보다 나눔의 너그러움으로 제 삶의 공간을 넓혀가는 사람이었다.

해 질 녘의 잔광이 비껴드는 오후, 고마운 마음을 갈무리해 막걸리 몇 통과 소박한 안주를 들고 그의 창고 사무실을 찾았다. 하루의 고단함을 미처 털어내지 못한 그의 동료들이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투박한 사발에 담긴 막걸리가 한 순배 달게 돌아, 팽팽하게 당겨졌던 거리감이 기분 좋은 취기 속으로 서서히 녹아내렸다. 호적상으로는 분명 남인 이들이 '언니', '오빠'라는 완장을 차고 내 삶으로 들이닥쳤다. 그 근거 없는 친밀함이 싫지 않은 밤이었다.

낮선 이의 참견이 거추장스럽던 시간도 잠시, 넝쿨째 이어지는 이웃들의 안부 속에서 이 마을을 지탱하는 긴밀한 관계의 그물을 발견했다. 사사로운 부분까지 파고드는 관심이

무례가 아닌 삶의 온기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대문을 열어두는 일에 익숙하다. 문 하나를 열어두었을 뿐인데, 길 건너 할머니의 굵은 등과 지나가는 이들의 말소리가 내 일상의 풍경 안으로 다정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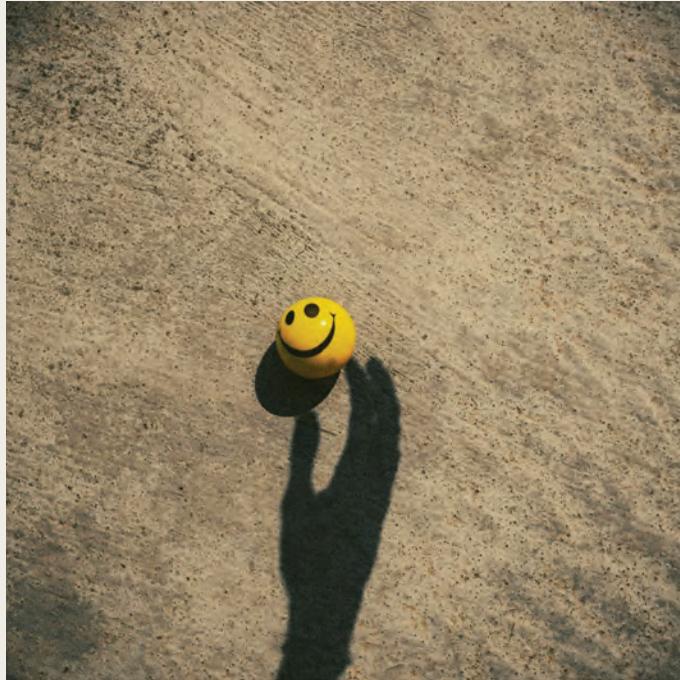
한 대문을 두 가구가 함께 쓰면서 이층 어르신께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웠던 나의 배려는, 되레 어르신이 빗속의 내 빨래를 먼저 거두어주시는 자상함에 그만 머쓱해졌다. 새벽녘에 비우고 간 쓰레기통 뚜껑을 닫아 우리 현관 앞에 살며시 놓아주는 그런 사소한 관심 속에서, 진정한 예의란 침묵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살피는 눈길임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해가 저도 대문을 굳게 잠그지 않는다. 벽돌 하나로 슬그머니 문을 괴어 둘 뿐이다. 그 작은 틈은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안부를 읽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통로가 되었다.

얼마 전, 이 산동네의 가파른 계단 어디쯤에서 생초의 하중을 견디던 누군가의 숨결이 고요히 끈을 놓았는지, 경찰과 과학수사대의 푸른 불빛이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곧이어 장의차가 오고, 집 앞 공터 주차장은 낮은 발길들로 마을의 공기가 바빠 움직였다.

아파트라는 견고한 성체에 살았더라면, 그 죽음은 ‘몇 동 몇 호의 번사’라는 무미건조한 활자가 되어 익명의 소문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죽음은 외면해야 할 금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골목에 드리운 그 그림자를 공동체의 한 시절로 조용히 껴안았다. 그것은 타인의 생초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도 기꺼이 내 삶의 여백 안으로 들여놓겠다는 마음이었으며, 낯은 담장들 사이로 수만 번 오갔을 안부들이 쌓여 만들어 낸 뜨거운 의리였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삶의 허리를 단칼에 베어내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다. 한낮의 별에 마르던 빨래 걸으로 저녁의 서늘한 그림자가 자연스레 스며드는 일상처럼 담담했다.

그 낮은 침묵 아래서 나는 이 마을이 오랫동안 층층이 쌓아 올린 시간의 곁을 더듬었다. 삶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죽음을 묵묵히 앉혀두고도 오늘을 살아내는 무던한 이웃들은, 경계 밖을 서성이던 나를 이 끈끈하고 치밀한 삶의 무늬 속으로 한 가닥 실처럼 끌어당겼다. 나를 응시하던 그들의 깊고 선한 시선은 차가운 경계심을 녹여냈고, 나는 타인의 생초와 사死가 내는 숨소리를 비로소 나의 것과 같은 무게로 나란히 고쳐 놓이게 되었다.

서재 창을 열면 황령산의 푸른 숨결이 책상머리 위에 질게 내려앉고, 비탈을 따라 어께를 맞댄 집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포근하게 맞닿아 있다. 계절과 날씨가 매일 다른 북



질로 고쳐 그려내는 이 풍경 앞에 서면, 소란했던 마음은 어느새 고요한 수면처럼 잤다. 2년 뒤 내가 여전히 이 가파른 길 위에 서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건네받은 사람의 훈기(薰氣)가 내 삶을 깊숙이 물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골목에 푸른 어스름이 번질 무렵, 차를 세울 곳을 찾아 서행하는 내 차창 안으로 반가운 눈길 하나가 건너온다. 하루의 고단함을 막걸리 한 잔에 씻어내던 어르신이 무심하게 슬쩍 들어 올린 손가락. 그것은 차 한 대 세울 빈자리를 가리키는 호의를 넘어, 줄곧 담장 밖을 서성이던 나를 비로소 마을의 풍경 속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는 묵직한 승낙이었다.

찰나의 실수를 너그러움으로 되돌려주던 이곳의 기억들은 이제 내 삶의 결마다 촘촘한 무늬로 남았다. 훗날 내가 이곳을 떠나 어느 낮은 길 위에 서더라도, 등 뒤에서 자꾸만 말을 걸어올 이 마을의 정겨운 소란함이 내 외로운 걸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붙들어 줄 것만 같다.

글 심선경 수필가

한국 문화예술회관발전상
국무총리상 수상
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본부장



설레는 표정으로 출발선 앞에 선 한 사람이 있다. 영화의전당 공연본부장 서승우다. 그는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예술 현장과 공공문화기관을 오가며 지역 예술문화의 질적 성장과 자립적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그간의 성취만으로도 이미 결승선에 도달했을 법하지만, 그는 다시 새로운 경기를 향해 출발선에 섰다. 인터뷰를 마친 뒤 읽어 내려간 70여 페이지의 기록은 그의 삶의 서사가 촘촘히 엮힌, 문화도시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지금, 서승우를 만나야 한다. 그가 발로 써 내려온 인생의 궤적은 예술도시 부산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가 개척한 자리마다 예술문화의 꽃이 피어났다. 이제 그는 세계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오랜 시간 기획자로서 탄탄한 길을 걸어온 것 같다. 그 길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출발은 배우였다. 1988년 극단 [부산무대]에서 연극을 시작했고, 첫 작품은 피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이었다. 그러나 발성의 한계를 느끼며 배우의 길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됐다. 2000년 부산예술제(총감독 이성규)에서 기획위원을 맡아 부산시민회관 광장에서 야외 공연을 진행했다. 당시로서는 전혀 없는 시도였다. 이후 제21회 전국장애인

경기대회 개·폐막 문화행사, 2002년 한일월드컵 문화행사와 아시아워크를 잇달아 기획하며 본격적으로 공연기획자의 길에 들어섰다. 같은 해 무대예술 전문연구 공연기획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고, 포상으로 15일간의 러시아 연수에 참여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언젠가는 반드시 극장을 경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3년 부산문화회관 산하 부산시립극단의 기획자로 활동을 시작해, 2005년에는 김해문화의전당 개관 준비요원 공개 모집에 응모해 합류했고, 대형 뮤지컬 유치와 티켓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문예회관 운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고객마케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후 창원 성산아트홀을 거쳐 2010년 영화의전당 개관준비단 공연감독으로 합류했다. 영화의전당은 출범 당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 성격이 강했지만, 이곳에서 '공연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다. 이러한 고민은 미드나잇 콘서트, 재즈페스티벌, 지역 창작극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부산국제연극제, 부산합창제, 부산국제무용제 등 지역 대표 축제들과의 협업을 통해 부산 예술문화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기획자가 바라보는 부산에 대한 시선은 남다를 것 같다. '문화도시 전문가'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유효한가.

물론이다. 부산 남구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의 감만동은 바다가 끝없이 출렁이던 곳이었고, '모래구찌'라 불리던 놀이터가 있었다. 방학이면 바다를 헤엄쳐 바위틈에서 담치를 긁어모아 삶아 먹곤 했다. 지금의 감만동은 재개발로 인해 많은 풍경이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예술이라는 희망을 본다. 남구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을 비롯해 UN평화기념관과 UN기념공원, 일제강점기기념관, 부산박물관, UN조각공원, 우암동의 우암사, 감만동의 무민사, 오륙도의 풍경까지 이 모든 자산은 역사와 예술, 자연이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이 된다. 2025년에는 남구문화재단도 출범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은 지역 공연의 변방으로 인식되던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 부산은 전 세계의 예술가와 작품이 반드시 거쳐 가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드림씨어터, 부산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그리고 개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부산 공연예술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 축제가 성공하는 이유는 화려함이나 특정 예술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역사, 기억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사람의 꿈으로 피어난다. 나 역시 문화도시 전문가라는 이름 아래, 꿈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삶을 바쳐오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2006년 초, 김해문화의전당에 뮤지컬 〈미스 사이공〉 김해 유치 제안서가 접수됐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해는 인구 40만 명 규모의 도시였고, 12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었다. 그러던 중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9억 원 전액 지원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태광실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을 초청해 4회 공연을 진행했고, 이후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단체 관람에 동참했다. 관객 유치는 김해를 넘어 창원, 마산, 거제, 울산, 부산, 대구까지 확장됐다. 100곳이 넘는 기관과 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그 시기 나는 문화기획자라기보다 외판원에 가까웠다. 하루 종일 발로 뛰며 공연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지금도 공연장 앞 풍경이 선명하다. 수십 대의 버스가 김해문화의전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배우들의 팬들은 김해로 몰려들었다.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다. 좋은 콘텐츠는 길을 열고, 예술은 도시를 변화시키며, 결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예술문화도시 부산을 향한 여정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스텝을 들려준다면.

영화의전당을 센텀시티 일대의 문화콘텐츠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영화 공연 IT 게임이 교차하는 융복합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하이브리드 공연 제작을 선도하고, 그 인프라를 지역 예술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개관한 서부산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영화의전당의 기능을 분점 형태로 확장해 시민이 일상에서 영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딩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연말,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빌리지'와 같은 '겨울이 기다려지는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계절 모두에 어울리는 축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영화의전당은 단일 문화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문화의 심장이자 세계인이 드나드는 문화의 항구로 성장할 것이다.

인터뷰 진행_정리_정혜주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 2관왕 안무가 **엄석린**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 재학
- 제33회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 <관계> 공동안무 및 출연
- 부산시 제14호 무형유산 동래한량무 전수자
- 국가무형유산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 최우수작품상, 우수무용인상 수상



엄석린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다. 그는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에서 안무작 <오>로 최우수작품상과 우수무용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 창작자에게 이 성과는 '완성'이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다. 그는 이번 수상을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나아가려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

축구선수에서 무용수로

엄석린의 출발점은 무대 위 춤사위가 아니라 축구장 위 땀방울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축구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선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반복된 부상은 그의 진로를 바꿔 놓았다. 허리디스크가 악화되며 재활을 거듭했지만, 결국 학창 시절 대부분을 함께했던 축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창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시기에 맞닥뜨린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무용계에 몸담고 있던 지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무용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안했다.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도 함께였다.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무용학원을 찾았고,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부산대학교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집안에 예술가도 없었기에 무용은 너무나도 낯선 길이었다. 하지만 학원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점차 흥미를 느꼈다. 그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입시를 준비해 브니엘예술고등학교로 편입할 수 있었고, 이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 전공생이 되었다.

전수자와 안무가로의 확장

엄석린은 단순히 젊은 예술가라기보다, 배움에 굶주린 예술가에 가깝다. 한국무용을 대하는 태도에는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보다 깊은 진지함이 깔려 있다. 누군가의 권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산의 전통춤이 지닌 미래를 고민하며 전통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전통 위에 새로운 해석을 덧대는 것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여겼고, 그 생각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래한량무> 전수교육조교인 박상용 교수를 직접 찾아가 전통춤을 배우겠다는 뜻을 전하며 전수자의 길에 들어섰다.

<처용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특히 남성적이고 호방한 움직임이 강한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럽게 자신과 잘 맞는 춤으로 다가왔다. <처용무>의 바탕에 놓인 음양오행陰陽

五行 사상은 그의 안무 세계에도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후 창작 작업에서 음양오행은 단순한 소재를 넘어, 작품을 관통하는 중심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처음에는 철학을 '담는 것'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작품이 다소 관념적으로 흐르기도 했다.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에서 <관계>의 공동안무가로 참여했을 당시에는 철학적 구조를 무대 위에 구현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경향은 안무작 <五>에서도 연결됐다. 음양오행의 순환 구조를 인간관계에 빗대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움직임으로 풀어내려 했지만, 작업을 거듭할수록 무언가 비어 있다는 감각이 남았다. 그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준 인물이 강미리 교수였다. 강 교수는 춤의 구조보다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즉 '메시지'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 조언을 계기로 작품은 방향을 달리했다. 철학 위에 '자기 이야기'를 엮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느껴온 '외로움'이 자리했다. 한국무용 전공 과정에서 남학생이 거의 없는 환경은, 축구선수 엘리트 코스를 밟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그 간극에서 비롯된 외로움은 회피할 감정이 아니라, 작품의 동력이 되었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며, 어찌면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로움을 품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주제의식을 담은 <五>는 그렇게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결국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우수무용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통을 깊이 이해한 전수자이자, 자기 서사를 춤으로 풀어내는 안무가로서의 확장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안무가 엄석린이 그리는 미래

엄석린은 한국무용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선명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현재 전수 중인 <처용무>와 <동래한량무>의 길은 결코 짧지 않다. 통상 3~4년의 전수 과정을 거쳐 이수 시험을 치러야 하며, 그 이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



는다. "한국춤은 마흔이 되든 아흔이 되든 계속 배우는 것 같다"는 그의 말에는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꾸준한 배움과 경험을 이어가며, 한국무용이 반드시 국내 무대에만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도 느꼈다 한다. 그 생각은 최근 경험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몽골·카자흐스탄·튀르키예·독일의 주요 도시를 돌며 해외 무대에 섰다. 북을 메고 치며 추는 전통춤 <버꾸춤(서한우류)>으로 현지 관객을 만났고,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전통춤을 춘다는 자부심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신명'으로 받아들여지던 감각이 해외에서는 '아름답다'는 언어로 확장되는 순간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해외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한국적인 호흡과 선이 지닌 힘을 더 다양한 무대에서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관왕의 현재는 분명 화려하지만 엄석린은 끝까지 자신을 '진행형'에 두고 말한다. 수상은 인정의 순간이 아니라 부족함을 확인한 계기였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남는 감정은 기쁨보다 다음을 향한 질문이다. 관객의 "잘 봤다"는 말은 합격점이 아니라, 다시 무대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 우연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의 춤은 우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상을 견디고 몸을 다시 만들었으며, 전통을 배우는 동시에 새로운 장면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한때 축구장 잔디를 박차고 달리던 소년은 이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글 박준영

시방세계十方世界 현상의
기속羈束에서 벗어난
자연 속 진리

제62회 한국문학상 수상자

시인
백향白鄉 이병석

- 손경산 스님으로부터 수계 범명 능지
- 1938 경상남도 김해 진례면 출생
- 1970 『현대문학』 3회 추천 등단
- 동아대학교 문학 박사
- 시집 『저승돌』, 『달의 꿈길』, 『고구려 옛 하늘을 날아』, 『두고 온 솔베개』
- 부산문학상 대상, 실상문학상 대상, 부산예술상 대상, 부산시인상(제6회) 수상
- 한국승려시인회 창립회장,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역임
- 현) 부산 천마산 천룡사 주지



인류는 스스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물이다. 또한 인생이라는 길고도 짧은 행로와 삶이라는 것에서 마주치는 필연적인 탄생, 죽음, 고통, 사회 규범, 자연의 힘 같은 극복할 수 없는 조건들을 대면한다. 사회는 안정성을 대전체로 규칙을 만들지만, 개인은 그 규칙 속에서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고, 이때 파생되는 것은 혁명이나 종교, 예술적 표현들이다. 이병석 시인은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 속 일어나는 현상과 삶에 대한 정의를 역사와 불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질인 자유와 진리를 시詩라는 매개체로 자유롭게 풀어내며 구현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완전함을 자각한 존재로서,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책을 동원해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이 작품의 방향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과 동시에 철학적 질문의 출발점이다.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대중에게 온전히 전하는 노老시인의 모습에서 올곧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초년기 방향과 삶 그리고 자연自然

이병석은 1938년 경상남도 김해 진례면에서 태어났다. 오남매의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본인만의 고집으로 긴 세월을 버텨내어 살아왔다. 한국 격동의 시기에 살면서 유년기부터 독자적으로 이 세상의 사회현상과 물질에 대해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비판적 시각에 입각한 독불장군 처럼 홀로 길을 만들어갔다. 그만큼 본인만의 확고한 관념과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봤기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세에서 떨어진 자연과 더 가깝게 지냈다. 그의 일관된 자세는 사회 속 자연과 유리되는 인간의 행태와 비인간성에 근거한 방향의 시기에서 시작된다. “내 갈 길이 정말 어딘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고뇌하며, 여러 고민 속에서 10대 시절의 많은 부분을 보냈다”며 지난 과거 자신에 대해 아쉬움을 펴며 회상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고향을 떠나 마산과 부산에서 공부할 것을 결심했던 터라, 마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성과도 좋았다. 주변보다 나은 우등생이었던 그에게 방향의 시기는 어찌면 당시 갑자기 닥친 부친의 중병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감정의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진학 이후 줄곧 그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서슴지 않게 자연 속에서 산행하며,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했다. 학업은 기본만 생각하며,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사회에 입성하면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앞서갔다. 20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인간 세상 속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발 디딜 곳이 안 보이고, 가야 할 방향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데가 없는 상황에서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시인詩人의 길 — 불가역적 상황에 대한 회로回路

시간이 흘러 군을 제대하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한 것이 시를 쓰는 것이었다. 여러 일 중 시를 쓰는 것은 참 그래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탐독하며 어느 순간부터 시인이 되고자 결심했다. 긴 방황의 터널 끝 인생의 돌파구와 해결점이 '시인의 길'이었다. 이때부터 한국 현대문학을 즐겨보며 자신만의 시각과 관념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도 문단 등단 형식이 동일하지만, 당시 등단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일간 신문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신춘문에 추천제도가 유일했다. 이 작가는 서정주 선생과 조지훈 선생을 으뜸으로 생각했는데, 추천을 받는 일은 거의 천 대 일의 확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이 많았다. 현대문학에 심취하며 추천위원으로 수소문을 통해 인연이 된 작가가 김현승 시인이다. 그에게 어렵사리 현대문학 추천 의뢰를 부탁하며, 1965년도 3월호에 첫 추천을 받았다. 3회 추천을 원칙으로 했기에 이후에도 12월호에 2회 추천을 이어서 진행했다. 한 해에 두 번 추천받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쓰려 작정하며 글쓰기를 즐겨 했던 그이기에 이뤄낼 수 있었다. 그때 추천을 해준 분에게 달려가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했었지만 달리 현실적 여유가 없어 쉽게 행하지 못했다. 당시 심적으로 불안정하고 혼자서 고립되었던 터라,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리고 참된 의미가 없는 인사는 의미가 없다고 대뇌였던 시기였다. 주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선뜻 찾아가 인사를 할 만한 배짱도 없었고, 마음의 자세가 어수룩할 만큼 외골수의 기질을 가졌었다. 이러한 와중에 부모를 통하여 알게 된 진영 봉화사 절에서 9년의 간이(間易) 생활을 보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 알게 되고, 독경과 예불을 배우면서 내적 변화의 시절을 경험했다. 이후 계절이 지나 1969년도에 문단 등

단의 마지막 3번째 추천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 제서야 늦게라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선생들과의 만남, 당시 정식입문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의 수더분한 말들에서 솔직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970년도 5월호 현대문학에 실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 등단에 성공했다. 추천이 진행된 1년 후에야 작품이 실렸을 만큼 당시에 현대문학은 다양한 작품이 많이 있었으며, 문인에 대한 경쟁과 지원이 치열했음을 시사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작가의 여러 행적은 사회적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깨달음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아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내적 고찰을 심화하며 이를 시에 적용했다.

자연 속 영원한 진리와 철학적 고찰

현대사회는 인간 중심주의로 자연은 자원적 측면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희생이 정당화된다. 이는 자연 지배적 사고에 근거해 인간이 자연을 통제·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기술과 과학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병석은 이에 대립적으로 자연의 질서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관점을 본인의 시에 담아냈다. 인간은 자연 일부이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인식을 통해 자연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나타낸다. 물질에만 치우친 삶은 바꿔야 할 점이 많지만, 어느 곳에 쓰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와 연계하여 인생사에서 물욕적 삶에 대한 경계와 소유에 대한 의미를 벼룩의 정서와 함께 새롭게 연결했다.



한밤 우레소리 와락 하늘 무너져
뜨거운 눈물 흘러흘러 강물 말렸네
산하대지 멸한 즉시 새로 열려
대천세계가 백화 만발한 고향

야반뇌동홀천파 夜半雷動忽天破
열류류류강수진 熱淚流流江水盡
산하대지멸즉신 山河大地滅卽新
대천백화만발향 大千白華滿發鄉

「바위에 올라-상암송上岩頌, 전문,
(『절벽 아래 파안대소破顔大笑』, 2023)

이 작가는 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대중들과 공유하길 원한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의 시간과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상의 시류 변화를 시에 적용하고, 재해석된 의미를 재전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각자의 삶과 세상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품 중 애착이 가는 시로 한겨울 밤 천마산에 올라 천자봉 바위에서 멀건 하늘에 우연히 우리를 경험한, 실로 자연을 온전히 맞이한 경이로운 순간의 감정을 읊긴 「바위에 올라-상암송上岩頌」을 꼽았다. 지난 50년 이상의 삶을 함축적으로 반추하며,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계송戒頌 형태로 지어진 시는 일상적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을 뜻하고, 우주로의 깨달음을 얻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고백했다. “내 마음속 우리 님의 고은 눈썹을/ 즈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뵈더니/ 동지선달 날은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늬하며 비끼어 가네” 그는 서정주의 짧고 명쾌한 「동천동天」 시를 읊조리며, 본인의 현재까지 창작 원동력과 시의 영감적 밑거름 역할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서정주의 시는 마치 여느 일반적인 삶을 하루 하루 버티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시’라는 독자적 언어와 무기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내면을 연결하고 새로운 사유적 방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인은 사회적 논리나 설명으로 그 역할을 정의 내릴 수 없으며, 감각적이며 상징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파생적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래서 이병석의 삶과 시대에 대한 통찰과 직관적 관찰로 집철된 시가 주는 여운은 현시대에 더 크게 다가온다.

글 인물사진_백근영

은숙도 노을

박혜숙

노을꽃이 번져 스러지는 적벽
바쪽 해를 붙잡으며 손짓하는 강변

은숙도 발끝엔
빛의 얇은 막이 걸리고

버스와 사람 그림자도
적마다 흩어진 시간을 주의 담는다

흔들리는 것은 꽃도 마음도
거꾸는 순결에
노을 바라보는 눈길만 뜨겁다

작가노트 | 저무는 빛 속에서 사라짐과 머무름이 공존하는 시간을 바라보며, 존재가 남기는 흔적을 성찰,
노을 앞에서 내면의 떨림을 통해 삶의 본질적 순간들을 되문고자 합니다.

글 박혜숙 (사)부산문인협회 회장, 새부산시인협회 자문위원

RE: VIEW

- 음악** '창작 클래식'의 치열한 도전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_ 이지훈
- 무용** 부산 춤의 내일, 야성을 입고 비상하다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 _ 김미자
- 미술** 사적 시선으로 풀어낸 기억 속 내면의 여정
이동순 '기억의 메타포Metaphor of Memory' _ 백근영

‘창작 클래식’의 치열한 도전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글_이지훈 철학·미학 박사, 필로아트랩 대표

어떤 문화가 지속하려면 콘텐츠가 중요하다. 클래식 음악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청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관점에서 부산에는 해마다 의미 있는 무대가 열린다. ‘창작 오케스트라의 밤’ 이야기다. 지난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은 작곡가 일곱 명의 신작을 연주했다. 이동신 지휘자와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동신 지휘자의 곡 해석은 탁월했고,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훌륭했다.

올해 주제는 ‘위로와 치유’였다. 일곱 작품에는 모두 심리치료와 철학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모티프가 있었다. 첫째 작품은 김규리 작곡가의 「두드림」. 작곡가의 말처럼 위로하는 두드리는 것이다. 상대의 어깨를, ‘마음의 문’을. 곡 앞부분은 절박하게 두드리는 리듬이고, 뒷부분은 마음의 문이 열리며, 평화를 찾는 리듬이다. 요컨대 포인트는 리듬이다. 앞부분의 박자가 다채롭다. 관악기 ‘에어 사운드’를 포함해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었다. 다양한 정서가 ‘폴리포니’적으로 표현됐다. 이 정서가 후반부에는 따뜻하고 맑아졌다.

둘째 작품은 김지현 작곡가의 「사랑^{戀量}」.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조건 없는 사랑’은 ‘마이트리다’. 그 이미지는 새끼 새를 돌보는 어미 새다. 다만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새끼 새처럼 대하는 어미 새다. 자신도 타인도 너그럽게 대하고, 또렷하게 본다. 용기

를 내어 자신과 타인의 실제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랑」에는 이런 두 정서가 교차한다.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복돋우는 마음. 숨 가쁘고 긴장된 리듬과 그 긴장이 풀리고 서서히 좋아지는, 두근거림의 리듬. 마침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에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안겨 준다.

세 번째는 배진의 작곡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은 상실한 대상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 과정이다. 그러면 ‘작별하지 않음’은 현실 부정, 부인을 말하는 걸까. 꼭 그렇진 않다. 이야기 치료의 선구자인 마이클 화이트는 ‘작별 인사’ 대신 ‘재회 인사’를 제안했다. 상실한 대상을 마음속에 새로 재배치하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재회다. 이로써 삶이 풍요로워진다. 곡 전반부에는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되돌아오는 느낌, 어디로도 못 가고 공회전하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끝내 무언가 새롭게 자리 잡는다. 그것은 재회다. 새로 재회 인사를 하는 느낌을 준다.

넷째는 김하람 작곡가의 「Fragments of Reminiscence」(회상의 조각들). ‘받아들임’을 주제로 한다. 심리치료에서 받아들임은 ‘그대로 두기’(let it be)에서 출발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지켜보기. 그 생각에 빠지거나 얽매이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기. 물론 나쁜 생각이 당장 바뀌거나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그런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친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



야 독성이 약해진다. 이 곡은 갈등하는 리듬이 차분히 화해하며 끝난다. 강한 비트에서 굴곡진 리듬으로, 생성 변화의 리듬으로. 심리치료에서는 나쁜 생각이 운전대를 잡게 하지 말고, 그저 버스에 함께 태우라고 한다. 버스 운전자는 당신이 그 생각이 아니다. 곡은 마침내 마음의 주인이 주도권을 잡는 인상을 준다.

다섯째 작품은 백은숙 작곡가의 「Impression for Orchestra 2025」. 여기서 인상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이 주는 인상으로 보인다. 대단히 서정적인 곡이다. 곡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전반부의 불협화음과 뒤영키는 듯한 리듬이 후반부에 이르면 화해한다. 조화롭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바뀐다. 따뜻한 리듬이 스며들고, 퍼져나가는 느낌을 준다.

여섯째는 박명항 작곡가의 「Is Not a Question」(악문이 아니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말부터 유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인간 자신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세계 자체, 즉 '절대로 포착(잡으)할 수 없는 X'의 주변을 끝없이 공회전하는 인간상이 만들어진다. 파악할 수 없는 X의 파악에 계속 실패하는 인간상. 비극적이다. 여기에 현대 철학자들은 '유한한 희극'을 제안한다. 하나의 무한한 수수께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나하나 해내고, 기쁨을 찾기. 각

자 존재의 유한성을 긍정하고, 기뻐하기. 유한한 희극이다. 곡 앞부분은 큰 물음표처럼 굴곡을 그리는 리듬이 반복된다. 그러다가 차츰 잦아들며 부드럽게 용해되는 리듬으로 바뀐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 자체의 해소를 아름답게 빚어낸다. 근대적 패러다임(신경중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이전, 또는 일상 존재의 긍정으로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그렸다.

일곱째는 백현주 작곡가의 「노는 게 제일 좋아」. 일상의 최고 긍정은 아이들처럼 노는 것이다.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 자체로 즐겁게. 이처럼 그냥 노는 것은 생산과 무관하다는 뜻에서 진정한 사치다. 조르주 바타유는 말했다. 이런 사치, 낭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노는 게 제일 좋아」는 이 지고성(Souveraineté)을 그려낸다. 아이들 놀이가 주는 '측정할 수 없는' 삶의 기쁨, 지극한 행복. 대단한 쾌락의 장치도 필요 없고, 자연과 타자의 수탈도 필요 없는 지고한 삶. 아이들이 놀다가 헤어지는 서사를 참신하게 그렸다.

일곱 창작자의 도전은 치열했고, 연주는 뛰어났다. <창작 오케스트라의 밤>은 관객들에게 동시대 클래식 최전선을 맛보게 하고, 창작자와 연주자에게도 좋은 기회를 준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부산 춤의 내일, 야성을 입고 비상하다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

글_김미자 국가무형유산 승무·처용무 이수자, 예아트센터 대표

젊은 단풍이 무대 밖 계절을 밀어 올리던 2025년 11월 29~30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29회 새물결춤작가전>이 열렸다. 이 무대는 부산 지역 신진 안무가들이 오롯이 창작에 몰입해 자신만의 서사를 무대 언어로 제시하고, 이후 유통·교류의 채널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무용 창작 플랫폼으로 기능해 왔다.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주관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발굴’에 머무르지 않고, 우수 창작작품의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부산 춤 생태계의 중요한 운영 장치다.

부산은 춤의 서사를 가진 도시다. 무형유산 종목들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살아 있는 한편, 동시대의 사회적 현장성을 흡수하는 감각도 공존한다. 어쩌면 지금의 젊은 춤꾼들은 ‘정통’의 단일한 문법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감정의 결을 통해 새로운 정통성(자기 서사의 정통성)을 구축해 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번 무대에서 돋보인 것은 바로 그 점인 관계의 역학, 감정의 허상, 우주론적 사유, 유토피아의 불가능성, 몸의 균열과 불안 같은 주제들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관계의 순환을 몸으로 번역한 <From>

첫 번째 작품은 [무브먼트 웨이브]의 <From>(안무 신현수)로, 김다영·김혜반·나인교·이유정·정지원·하유리 춤꾼이 함께했다. 작품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영향과 공감, 그리고 그 안

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을 다룬다.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몸에 닿아 변형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관계의 순환’을 무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생성해 내며, 언어적 설명 없이도 충분히 설득되는 밀도를 확보했다.

이 무대의 강점은 ‘설명’이 아니라 전달 방식의 일관성에 있었다. 깊은 내면의 심경을 언어로 보완하지 않고, 오롯이 움직임으로만 밀고 나가는 집중력이 작품의 설득력을 만들었다. 젊은 춤꾼들의 거친 호흡,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적 에너지는 오히려 현장감을 증폭시키며, 관계의 역학이 가진 생생한 마찰을 몸으로 증명했다. 흔들어 떨어지고 다시 붙잡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터지는 전율이 작품의 카타르시스를 확보한다. 무대에서 중심을 잡아낸 김다영은 개인 부문 여자 우수무용인상을 수상하며, 작품이 구축한 호흡과 긴장을 수행의 설득력으로 입증했다.

절제된 밀도로 ‘감정의 허상’을 제시한 <Infinity>

두 번째 작품은 김나연 안무자의 <Infinity>로, [SYN댄스 컴퍼니]의 김예원·임윤경·여하진·정유미 춤꾼이 무대를 채웠다. 작품은 “감정은 감정적 허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그 허상이 남기는 모순된 흔적을 몸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려함의 부재’가 곧 빈약함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움직임은 무채색에 가깝게 정제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 절제가 감정의 진폭을 다른 방식으로 끌어올렸다. 비장한 표정과 간결한 동작이 만드는 밀도 속에

서, 춤꾼들은 허공에 떠 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비상’을 꿈꾸지만, 끝내 그 비상은 쉽게 완결되지 않는다. 그 미완의 지점이야말로 작품이 말하는 ‘허상’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Infinity>는 이번 경연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개념을 움직임의 밀도로 구현한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장면과 이미지로 삶의 순환을 설계한 <오五>

세 번째 작품 <오五>(안무 엄석린)는 [댄스프로젝트 p&u]의 김민서·오혜원·임성현·최진수가 함께 호흡했다. ‘오행’인 삶과 죽음, 상생과 상극의 순환을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엄석린 안무자는 형식의 완성보다 장면과 이미지의 배열을 통해 움직임의 서사를 풀어내려 했다. 특히 인간의 외로운 단면적 정서를 ‘집단적 움직임’ 안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구조로 배치하며, 고독한 소통을 형상화한 지점이 참신했다. 삶의 여정을 거창한 선언으로 제시하기보다, 장면의 전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건네는 방식이 작품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오五>는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오행의 순환을 장면과 이미지로 번역한 구성력과 집단 움직임의 서사화 전략에서 가장 선명한 성취를 남겼다. 또한 안무자 엄석린은 남자우수무용인상을 함께 수상해, 작품의 미학을 수행자와 창작자의 양 축에서 입증했다.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을 정교한 신체로 드러낸 <ArcadiaII>

네 번째 경연작 <ArcadiaII>에서 김가빈 안무자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바라지만 결국 유토피아를 가질 수 없는 인생의 좌절을 표현하고자 했다. 어두운 동굴을 내려가다 마주치는 맑은 물, 그 안에서 첨벙거리는 파충류의 움직임을 비유처럼 불러오며 아름다움과 기괴함을 동시에 제시한다. [자인 탄츠 그렌츠로스]의 김민주·정주은·최혜원한 예진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이를 구현했고, ‘이상향’이라는 제목이 역설로 작동하도록 무대의 정서를 구축했다.



정지를 긴장으로 번역한 <sh-()-unheard>

다섯 번째 작품은 [뽕잡화집]의 <sh-()-unheard>로 배진아 안무자가 김민국·장진솔 춤꾼과 함께했다. 작품은 무리 속에서 홀로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마주하는 신체의 여정을 그린다. ‘가만히 있음’이 아니라, 움직임을 위한 호흡이 동반된 정지, 그 절제의 미학으로 몸의 균열을 탐색한다.

내면의 긴장감을 ‘움직임의 과잉’이 아니라 정지의 해석으로 돌려세운 발상이 기발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Unheard’을 다루는 방식이 성급하지 않다. 불안을 설명하지 않고, 몸이 불안을 견디는 시간을 무대 위에 남긴다. 그 시간의 밀도가 관객의 감각을 붙잡는다.

새물결이 남긴 과제와 가능성

이번 새물결춤작가전은 신진 안무가들이 동시대의 정서를 어떻게 신체 언어로 전환하는지, 그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제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사회적 감각과 접속하는 방식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뤘다. 완성의 과시가 아니라, 젊은 안무가들이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무대 위에 올린 자리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무한 가능성의 증거이고, 거친 호흡은 다음 장면을 여는 추진력이다. 이 무대에서 던져진 질문들이 멈추지 않고 다음 작품으로 이어질 때, 부산의 춤은 더 넓은 관객과 더 깊은 언어로 만나게 될 것이다. 젊은 안무가들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도록, 현장은 앞으로도 박수와 지지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

사적 시선으로 풀어낸 기억 속 내면의 여정

이동순 ‘기억의 메타포 *Metaphor of Memory*’

글_백근영 한국화가

누구에게나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또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지나간 기억을 독자적·예술적 언어로 전환하여, 탁월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일련의 선으로 작품에 적용한 이동순 작가의 ‘기억의 메타포 *Metaphor of Memory*’ 전이 갤러리 조이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그의 작업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이라는 비물질적 요소를, 감정의 구체적 형태로 끌어올리는 과정에 주력하고 이를 시각화했다. 전체 이미지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시대적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포착하며, 자전적 의미를 확장해 관객과 기억의 감정적 교차점을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푸른색’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의미로 현재와 과거를 자유롭게 오가며,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작가의 유년기 추억들을 캔버스 위에 기교 없이 유희적인 공간으로 펼쳐냈다. 색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며,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저마다의 색을 품고 살아가기에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노란빛이 어린 시절의 햇살을 떠올리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짙은 붉은빛이 오래된 추억의 잔잔함을 건네기도 한다. 작가에게 푸른색이 가진 의미는 “때론 떠나고 싶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은 끝내 떠나지 못했던 색깔이다”라고 언급한다. 시기별 또는 기억의 기록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주제와 형상으로 구현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 메타포의 시작은 1970년대 「여인 시리즈」부터 시작됐다. 전체 이미지는 절제된 화면 속 담백하고 감각적 터치와 표현이 돋보이며, 인물과 형상 속 표정과 배경이 흐릿하게 지워지고 가려져, 당시 작가의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 붓에 의한 대상의 명확한 표현보다 다소 흐트러진 듯한 인물과 집, 자연 속 이미지들을 재현하며, 회화의 기본인 면·선·색으로 형상의 화려함 대신 고요한 느낌을 풍긴다. 1985년부터 나타나는 「바보 시리즈」에서는 기존 표현 방법에서 변화된 추상의 특징을 가져간다. 특히, ‘바보’라는 단어가 가진 다양한 함의를 중의적 표현으로 다루며, 사회에 대한 통찰과 당대 격동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애를 함축적으로 작품 속에 녹여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놀이 시리즈」에서는 ‘놀이’라는 개념을 작가 본인의 유년기와 사회화와 연결해 유희적으로 도상에 적용했다. 이때부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낙서나 콜라주, 오브제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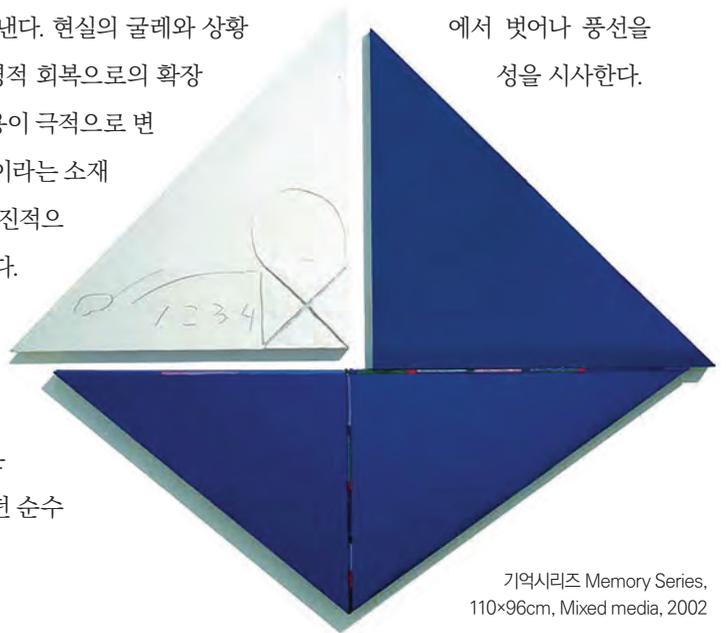


기억시리즈 Memory Series, 220x90cm, Mixed media, 2002

자유로운 표현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소재를 단순화하거나 기호화하고, 대상이 지닌 역동성, 구조 등을 직관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풀어낸다. 인류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고, 학습과 성장이 중요한 요소임을 그는 어린 시절과 연계하여 기억 속의 딱지 접기와 구슬치기, 시차기 등을 통해 보여준다. 놀이가 문화의 기원과 형성의 바탕을 강조하는 개념에 따라, 현대사회 속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는 워라벨(Work-Life-Balance)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12년부터 현재의 「일기를 쓰다」라는 주제로 넘어오면서 보다 심층적 내면의 기록을 담담히 쏟아낸다. 현실의 굴레와 상황에서 벗어나 풍선을 성을 시사한다.

이 작가의 작품 연도별 일련의 변화들은 주제와 내용이 극적으로 변했다기보다, 일관되게 간직해 온 시절 속 순수한 기억이라는 소재를 '현대인의 치유와 영혼의 위로'라는 메시지로, 점진적으로 심화하고 확장 시켜온 여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품 외적으로도 놀이가 예술이 되는 체험 형식을 적용하여 관객에게 지난 동심으로 돌아가 시차기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상호 소통 예술 방식을 제시했다. 전시장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현실 속 고뇌를 잠시 멈추고 잊어버렸던 순수한 내면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와 회복을 기대한다.



기억시리즈 Memory Series, 110x96cm, Mixed media, 2002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현인 - 군세어라 금순아



— 제5화 —

「군세어라 금순아」와 피란도시



1953년에 출시된 「군세어라 금순아」의 레코드판

6.25전쟁 당시 부산은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은 후방지역이었지만,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에 대한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그것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그나마 한반도에서 막다른 피란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이다. 피란민들은 철도와 선박과 그리고 육로로 줄지어 한꺼번에 몰아닥쳐 곧 도시는 포화 상태에 빠졌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왔다. 그것은 총소리 나지 않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허기와 추위 그리고 식수와 질병과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달픈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피란정국의 지원과 동병상련의 이웃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여기에 피란민의 실상이 노래가 되어 불리면서 위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곡이 「군세어라 금순아」였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1·4이후 나 홀로 왔다

- 「군세어라 금순아」 가사 1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전쟁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수난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파생된 이러한 노래가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지 모른다.

「군세어라 금순아」는 당시 인기 작곡가였던 박시춘(본명 박순동)이 작곡하고, 그의 친구인 강사랑(본명 강대은, 예명 강해인)이 작사했으며, 노래는 이 고장 출신 현인(본명 현동주)이 불렀다. 노래의 공간적 무대는 흥남과 부산이었지만, 음반이 출시된 곳은 1953년 대구의 오리엔트레코드사였다. 당시 음반

을 제조하는 도시는 부산과 대구 두 곳이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작곡가 박시춘이 이 음반회사에 합류하면서 부산 관련 노래가 여기서 꽤나 나왔다. 대표적인 음반이 「귀국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부산행진곡」 등이다.

현인은 우리나라 1세대의 대표적인 가수로서 1919년 영도구 영선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영도에 있는 미국계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회사에 다녀 대체로 부유한 형편이었고, 주 생활근거지가 영도였다. 본가가 구포라서 할머니 댁을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구포초등학교를 나왔으며, 이어서 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나온 후, 1942년에 일본으로 유학하러 가서 도쿄에 있는 우에노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관학교를 나와 군 장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음대를 진학하여 교수가 되고 싶었다. 이에 화가 난 부친은 그의 학비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징용대상이 되었고, 이때 피신한 곳이 중국 상하이였다. 현인은 그곳에서 악단 [신태양]을 조직해서 극장 무대에서 연주하며 보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은 당시 명성을 날리던 작곡가 박시춘이었다. 박시춘은 자신의 곡을 하나 내밀며 불러달라고 청을 하지만, 현인은 성악도가 유행가를 부를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박시춘의 끈질긴 권유에 현인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 곡을 부르게 되었다. 그 노래가 「신라의 달밤」이었고, 현인을 가수로서 화려하게 데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예대 소속으로 전선을 누비고 다니다가 도중에 차가 굴러 허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 무렵 발표된 노래가 「전선야곡」과 「군세어라 금순아」였다. 특히, 이 노래에서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의 독특한 바이브레이션과 스타카토(Staccato) 창법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의 개성 넘치는 목소리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그만이였다. 이후 현인은 라틴 리듬에서부터 샹송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장르를 소화해 가면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가요계를 이끄는 최초의 월드뮤직 전령사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재능은 격동의 현대사와 더불어 우리 가요사의 매 소절을 빼곡히 채워갔던 가수로서 노래에 대한 표현과 해석력이 매우 뛰어나 우리 가요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¹⁾ 사후에 이러한 훌륭한 가수를 두고 어디 고향 부산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먼저 2003년 안태고향 영도구청에서는 1억 원을 들

여 영도다리 입구에 흥상과 함께 「군세어라 금순아」 노래비를 세웠다. 이에 질세라 서구에서도 지난 2007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어릴 적 그가 즐겨 찾았던 송도해수욕장에 현인광장을 만들어 그곳에 동상과 노래비를 세우고, 매년 8월 이곳에서 ‘현인가요제’를 열어가며 그의 예술혼을 기리고 있다.

「군세어라 금순아」는 흥남 철수작전 당시 여동생 금순이와 헤어지고 혼자 부산으로 피난 온 실항민이 여동생을 그리면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군세계 살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3절로 된 가사다. 곳곳에 실항민의 애절함이 피어나는 가사와는 달리 노랫가락은 경쾌하고 구성적이다. 그런데 술한 여성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 1967년 초량동의 산복도로(부산광역시)

2 1951년 피란민으로 가득 메운 부산국제시장 전경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미국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아'에 승선한 피란민들 모습(세계일보 DB)

무슨 이유로 노래 제목에 '금순'이란 이름을 정했을까? 이에 대해 대중가요 연구가이자 전 해양대학교 교수였던 박명규 씨도 궁금했던지 직접 작사가 강사랑 선생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어느 날 강 선생이 부산시청 옆 '항구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통통배 이름이 '금순호'였단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이야길 들은 박 교수는 곧 선급 협회에 문의해 당시 금순호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금순이란 사람을 찾기 위해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의 호적과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으나 찾지를 못했단다. 결국 영도 지역의 노인들에게 수소문하여 대평동에 거주하는 조금순이라는 당시 연세가 아흔 된 할머니를 찾았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따서 선박 이름으로 붙였다고 했다. 이러한 제목의 사연을 가진 「굳세어라 금순아」는 가사 가운데 그 당시 역사적 상징성을 대변하는 네 단어가 담겨 있어 더욱 피란가요로서의 주가를 높인다. '홍남부두'와 '1·4이후' 그리고 '굳세시랑'과 '영도다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단어 속에는 우리 민족의 비애와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그 공간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굳세어라 금순아」의 가사 배경은 홍남부두에서 피란민의 철수작전에서 비롯된다. 혹한의 기상 속에서 배를 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피란민의 모습은 전쟁의 처절한 장면 중

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원인은 인천상륙작전에 힘입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였지만, 갑자기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면서 유엔군 사령부는 결국 1950년 12월 8일 홍남 철수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어 홍남과 개마고원 사이에 있는 인공호수 장진호 주변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이 전투를 벌이면서 12만의 중국군 남하를 지연시킨다. 그 사이 홍남부두에서는 한국군과 유엔군 10만 5천 명, 약 10만에 달하는 피란민, 여기에 1만 8천여 대의 차량과 각종 물자 35만 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게 된다. 이게 '홍남부두 철수작전'이다. 이러한 공산 진영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 다음 해인 1951년 1월 4일 서울까지 뺏기면서 후퇴하게 되는데, 노래 속의 '1·4이후'는 이 시점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눈물겨운 장면은 홍남부두에서 7,600톤의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아호(S/S Meredith Victory)가 일귀낸 휴먼드라마였다. 이 화물선의 레너드 라루(Leonard LaRue) 선장은 함흥부두에서 떨고 있는 피란민들을 보고 선적했던 군수물자를 모두 배에서 내리도록 명령하고, 대신 피란민 1만 4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다. 그러나 부산은 피란민을 더 이상 수용할 곳이 없어 다시 뺏머리를 거제도도로 돌렸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무사히 장승포항에 안착시킨다.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오히려 5명의 신생아가 배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공과로 2004년 9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로 메리디스 빅토리아호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노래 속 '금순이'는 이 배를 타고 온 상징적 인물이다. 그러면 당시 부산에는 얼마나 많은 피란민이 도착했었기에 입항이 어렵다고 했을까?

1951년 1월 15일 자 부산일보 1면에는 "부산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그 후에도 계속 피란민들이 들어와서 많을 때는 12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 6·25전쟁 직전엔 부산 인구가 48만 명이었는데, 70여만 명이 피란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란민

1962년 동아출판에서 제작한 「굳세어라 금순아」 영화 포스터(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현인의 인물상과 초승달의 이미지 등이 형상화된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비

은 약 7만 명 정도가 수용되고, 나머지는 길거리에 쏟아졌다. 1951년 2월 1일 자부산일보 사회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늘의 부산은 곳곳이 초만원이다. 거리거리 골목 구석마다 사람의 물결이 넘치고, 밥집·다방·요정까지도 들어설 틈이 없다. 여관에도 콩나물박하듯 어느 집 구석방 할 것 없이 피란민들로 꽉 찼다. 심지어 다리 밑 산비탈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빈자리가 드물었다. 터질듯한 부산은 주택난, 식수난, 식량난의 소동 속에 먼



지와 쓰레기에 싸여 있다”라고 적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도시였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부산의 고지대에 주거지가 형성되고, 이곳을 통하는 산복도로가 생겨났다. 휴전 이후 그 많은 피란민 가운데 남쪽에 고향을 둔 피란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피란민은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에 정착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시장을 비롯하여 자갈치시장과 부두가에서 악착같이 생업에 종사하며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둔 부산사람이 되었다. 이 산간족인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나면 실향의 아픔과 피란의 설움을 술 한 잔으로 달래가며 수없이 「굳세어라 금순아」를 불렀을 것이고, ‘금순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영도다리 주변을 수없이 서성거렸을 것이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그렇지만 날로 「굳세어라 금순아」는 명성을 얻었다. 동명^{동명}의 악극에서 출발하여 영화, 드라마, 코미디와 패러디로 만들어졌고,²⁾ 최근엔 OST곡으로 영화에 삽입되기도 했다. 먼저 1953년 노래가 발표된 그해, 호화선악극단에서 동명의 악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주인공 역은 황해가 맡았고 주선태, 전칠성, 왕숙량, 백설희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1962년 최학곤 감독이 동명의 노래를

원작으로 제작하였는데 최무룡, 구봉서가 주연이었다. 이어서 2002년엔 현남섭 감독의 데뷔작인 코미디 모험 액션영화가 선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술값 때문에 술집에 잡혀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갓난아이를 들쳐 업고 생전 처음 유흥가에 들어선 햇병아리 아줌마의 하룻밤 무용담으로서 배두나, 김태우, 이찬민, 주현이 출연했다. 또한 동명의 드라마는 2005년엔 MBC에서 방영한 한혜진, 강지환 주연의 일일드라마였다. 노래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하여 부산판 영화 <국제시장>에 삽입되었는데, 영화 후반부쯤 주인공 윤덕수의 손녀가 「굳세어라 금순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굳세어라 금순아」는 동명의 악극에서 시작하여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전쟁이 남긴 애환과 한을 삭이고, 전후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위해 희생과 근검 정신으로 살아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아이콘이 되었다.

글 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박성서, 「한국이 낳은 불멸의 歌人, 가수 현인」, 《뉴스메이커》, 2012.11.5.
2 이영훈, 「유행가는 역사다」, 2018, 휴먼스토리, P.72-73.

업계가 자초한 대한민국 골프 산업 ‘大 위기’... “관계 당국, ‘통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나라의 모든 면이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준마(駿馬)’가 되어 하루에 천리를 달리듯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호의 주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골프 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금의 한국 골프 산업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계속 방치되면서 골프 산업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골프는 1400년대부터 스코틀랜드의 푸른 초원에서 목동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막대기로 돌맹이를 툭툭 쳐서 토끼 굴에 넣은 데서 비롯되었

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기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골프(Golf)라는 단어가 스코틀랜드의 옛말 ‘고프(Gouft)’에서 따왔다고 하니까요. 물론 네덜란드 기원설과 아시아 기원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심심풀이 놀이로 시작한 골프가 ‘재미’ 때문에 널리 퍼져 나갔는데, 자연스럽게 경기장이 조성되고 경기방식과 승패를 정할 룰(Rule)도 생겼습니다. 골프 공과 공을 때릴 수 있는 클럽도 만들어지면서 골프가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경기로 정착한 것이죠. 우승자는 파3(쇼트 홀)-파4(미들 홀)-파5(롱 홀) 18개 홀(또는 그 이하) 경기장에서 ‘놓인 볼을 그대로 플레이해서(Play the ball as it lies)’ 스트로크 수가 가장 적

은 선수가 차지합니다. 수십, 수백만 평의 넓은 경기장에서 물을 엄격하게 지키며 ‘밤뜰만 한 공’(직경 42.67mm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45.93g보다 무겁지 않아야 함)을 ‘주먹만 한 홀컵’(직경 108mm)에 가장 적은 타수로 집어넣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쟁자와 싸우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시초는 1900년경 영국인들이 함경남도 원산항의 세관 안에 만들어 즐긴 여섯 홀짜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독섬(지금의 서울 독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연덕춘(延德春 (1916~2004))은 18세 때인 1932년 집과 가까운 군자리 골프 코스(현재 서울 성동구 어린이공원 자리)에서 캐디 마스터 보조역으로 골프와 인연을 맺은 뒤 주변의 권유로 일본 골프 유학길에 올라 1935년 1월 일본 관동골프연맹으로부터 프로 자격증을 취득, 한국인 1호 프로골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8년이 되어서야 연덕춘의 주도로 한국골프협회(KPGA)가 창설된 데 이어 한장상 등 1세대 프로 골퍼들과 함께 1988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를 설립하는 등 한국에도 골프가 서서히 체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구옥희와 박세리, 최경주, 박인비, 신지애, 고진영 등 걸출한 선수들이 한국을 넘어 일본 JLPGA 투어와 PGA 투어, LPGA 투어 등 세계 무대에서 잇따라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기염을 토하면서 한국에도 거센 골프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군부 골프장 등 특수 골프장을 포함해 총 525 곳입니다. 이를 홀 수로 계산하면 1만 876홀이고,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하면 604곳이나 되는 셈입니다. 가난한 나라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그것도 산악지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골프 불모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장 수가 500곳이 넘고 골프 인구도 거의 600만 명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한국인 = 골프를 극도(極度)로 좋아하는 국민”이라는 평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인구수 5천만 명에 골프 인구수가 600만 명이라면, 전체 국민의 12%가 골프채를 잡고 있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이런 골프 인구 비중은 ‘골프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골프는 한 번 치고 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골프장에 ‘가고 또 가고 싶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골퍼들은 평생 내야 하는 골프 비용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골프장들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폭리 취하기에 치중하는 ‘영똥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원제, 대중제 등 모든 골프장은 경쟁적으로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데 혈안이었던 거죠. 10만 원 안팎이던 그린피가 15만 원, 20만~30만 원 대로 치솟았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를 50만 원대까지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4만 원 선 안팎이던 팀당 카트비도 8만~12만 원 선으로 올렸고, 리무진 카트를 투입한 뒤 무려 2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10만 원 선이던 캐디피를 14만~16만 원까지 올렸는가 하면 식음료대도 확 올렸고요. 이러다 보니 골퍼들은 골프 한 번 치려면 골프장까지 가고 오는 교통비까지 포함, 30만~80만 원을 부담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특히 활동성이 큰 젊은이들까지 신규 고객으로 합류하면서 골프장마다 피 튀기는 ‘부킹(예약)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내놓은 ‘2020~2024년 골프장 내장객 수 추이’를 보면 그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내장객 수는 6홀 이상 정규 골프장(회원제+비회원제)만을 포함한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약 4,673만 명이던 것이 2021년엔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돌파한 5,056만 명이었고, 2022년엔 5,058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설은 부족한데 손님들이 대거 몰려들었으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폭이 지나쳤다는 점이었죠. 가격을 마구 올린 골프장들은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턱없이 오른 비용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은 서서히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하늘길이 열리자, 골퍼들은 경쟁적으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여파로 골프장 내장객 수가 4천만 명대로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2023년 4,772만 명에서 2024년에는 4,771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5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손님이 계속 떨어져 나가니 골프장들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 실제로 2024년 이후 내장객 격감에 따라 일부 비수도권과 제주 등지의 골프장 다수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기멸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경영 합리화에 더 매진, 비용을 더 낮추어 고객들이 꾸준히 골프장을 찾게 해야죠. 그러나 골프장들은 고객을 '뽕'으로 삼고 그들의 지갑을 터는 데만 열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 속에서 움짱달짝 못 한 채 '가격 폭등'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고객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갑을 지키려는 골퍼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클럽을 휘두르는 손맛을 비싼 국내 골프장이 아닌, 값싸고 서비스 좋은 해외 골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2023년의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골프 활동 참가자 중 해외 골프 경험자 비율이 무려 65.8%에 달했고, 자주 찾는 국가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내 골프비용이 턱없이 높은 데다 예약 부담에 시달리는 등 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해

외 골프장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H 여행사가 처리한 2024-2025 시즌 해외 골프 여행 예약 건수의 경우 2023년 대비 62%나 늘어나는 등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챗 GPT가 분석한 한국인 해외 골프 추정 모델을 보면 해외 골프를 즐기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국하는 골퍼는 전체 골퍼의 15~20%였고, 해외로 나가는 골퍼 수는 2023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늘어난 42만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자의 지인도 2023년부터 일본의 한 골프 리조트를 연간 2~3회꼴로 찾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성비가 그저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항공료 포함 그린피와 숙박비, 1일 2식 비용 등 제반 비용 100만 원 안팎만 부담하면 한국 골프장보다 훨씬 멋진 골프장에서 4박 5일 동안 108홀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골프장은 별도의 카트비가 없는 데다 노캐디제로 9홀 무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27홀 라운드와 함께 천연 온천욕까지 즐길 수 있으므로 가고 또 가게 된다는 것이었죠. 지인의 말을 듣고 국내 골프장에서 108홀 골프를 쳤을 때의 비용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18홀을 6번 도는 셈이 되는데, 그린피 1인 20만 원과 캐디피 팀당 14만 원, 카트비 팀당 10만 원, 식음료대 1인 3만 원, 교통비 1인 3만 원 등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6번 라운드 총비용은 195만 원 선입니다. 이는 일본 골프장을 가는 데 드는 총비용의 3~5배 수준이며, 항공요금과 리조트 숙박비, 1일 2식 비용, 천연 온천 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이 일본보다 3~5배 비싼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도 서너 차례 일본 원정 라운드를 즐길 계획이라는 지인의 말에 수긍이 갔습니다. 지인의 말대로라면 일본 골프장으로 향하는 한국 골퍼들의 발

걸음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골프장들의 가성비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본 골프장들엔 '큰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1980~91년의 버블 경제, 고가 회원권 분양을 토대로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일본에선 엄청난 골프장 건설 붐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원권 가격이 수억 엔에서 수십억 엔까지 폭등하자 "골프 회원권 = 투자 대상" 또는 "골프장 = 금융상품"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해요. 기업 접대는 당연히 비싼 골프장에서 이뤄졌고, 골프장 출입이 상류층들의 어깨를 한껏 추켜세워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버블 경제 붕괴로 1991~2002년 사이에 회원권 가격이 90% 이상 폭락, 환급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서 골프장 줄도산 사태가 이어집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엔 론스타와 골드만삭스, 포트리스 등 외국계 투자 펀드가 대거 달려들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일본 골프장을 헐값에 사들이게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국부 유출이라는 '유탄'을 맞은 셈이 되었죠. 일본 골프장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나는 자구노력을 하게 됩니다.

혹독한 인력 구조 조정은 당연했고, 잔다-관리-식당 등 모든 분야의 경영혁신을 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체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골프장 경영체제로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실효를 거둬 일본 자본들이 다시 골프장을 인수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골프장 운영 방식이 기존의 회원권 모델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골프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춰지는가 하면 편의시설 확충도 이뤄지면서 고객들이 다시 골프장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GDO와 낙천(樂天) GORA 등 온라인 예약사이트 이용이 보편화된 점도 골프장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골프장엔 또 다른 경쟁력이 숨어 있습

니다. 다름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속에 '인바운드 골퍼', 즉 외국인 골퍼들의 대량 유입을 이끈 점입니다. 엔저 장риз화를 역이용해 한국과 대만, 중국인 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골프장들을 찾아오게 하는 상품들을 개발한 것이죠. 필자도 2025년 12월 초에 지인 세 부부와 일본의 한 골프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무려 2시간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다소 외딴곳인데도 한국인 골퍼들이 북적대고 있었고, 그곳을 찾는 한국인 숫자는 2~3년 전에 비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골프장 관계자(부산 출신 한국인)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골프장의 경우 평일에는 한국인 골퍼가 60~70%나 차지할 정도라고 했어요. 이처럼 일본 골프장들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처절한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저렴한 비용 실현을 통해 외국인 골퍼 유치 전략까지 구사함으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골프장들에는 '자구 전략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젊은 층이 테니스나 달리기 등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주 고객층인 50~60대 골퍼들이 파크골프장으로 줄지어 향하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비용'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고비용'을 신줏단지 모시듯 붙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골퍼들이 해외 골프장에 갖다 바치는 '엄청난 국부(달러) 유출'입니다. 그러니 국가 통치 차원에서 '골프장 고비용 개선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외국 관광객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골프장을 찾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골퍼들은 달러 싸 들고 해외 골프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관계 기관들의 직무 유기 여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_심수화 언론인/저널리스트

2025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 수상

김동준(사진) 조희주(음악)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개최됐다. 2025년에는 총 6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부산예총에서는 부산사진작가협회 김동준과 부산음악협회 조희주가 공로상을 받았다.

김동준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자문위원 및 전국 지부 촬영대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동대학교 뷰티포토타그래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디지털사진 강좌 등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사진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제17회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희주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그룹 An-ti Stimmung 대표로 활동 중이다. 1984년 부산음악상, 2008년 황조근정훈장(대통령 표창), 부산대학교 송공패 등을 수상하며 지역 음악계 발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왔다.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은 민간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헌신한 예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된 상이다.



<정정합니다>

예술부산 2025년 12월호(vol.246) 예서제서 p.40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상하이 청년미술대전 수상자 부산 청년예술가 '이동현'을 '이현도'로 바로 잡습니다. 작가님의 성명 표기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고,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예술부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부산 2025년 12월호(vol.246) 예서제서 p.34에 게재된 제51회 부산미술대전 통합대상 수상작인 민화부문 최인선의 「다 이루어질지니」가 운영위원회의 이의 제기과 총 심사위원장 및 대회장의 협의를 거쳐 수상이 취소되었습니다.



제3회 일퍼센트정기전

2025. 12. 16.(화) ~ 20.(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예술로 사회에 1%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일퍼센트정기전'이 2025년 3회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20여 명의 회원이 '조화와 대화'를 주제로 수채화 수업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선정된 12명의 작품을 초대해 함께 선보이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시는 추상부터 자연의 심상을 담은 작품과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 입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총 32점을 소개했다. 조금은 서툴지만 사물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사려 깊게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세상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문의 010-3458-5382



자연에서 배어나다 송대호 산수·傘壽전

2025. 12. 15.(월) ~ 30.(화)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송대호 화백이 팔순을 맞아 개인전 '산수전-자연에서 배어나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55년간 이어온 작가의 화업을 되짚는 자리로, 자연의 숨결과 시간의 흔적을 담아낸 작품 55점을 선보였다. 송대호 화백의 작품에는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체득한 서정성과 여백의 미학이 배어 있으며, 화려함보다는 담담한 붓질로 삶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한다. 작가는 변화하는 계절과 풍경 속에서 인간의 삶과 감정을 투영해 왔다. 이번 산수전은 작가의 연륜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업을 통해,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문의 010-3466-0711



로맨틱 가든, 크리스마스 서은경 개인전

2025. 12. 23.(화) ~ 1. 22.(목)
레오앤갤러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서은경 작가의 개인전 '로맨틱 가든, 크리스마스'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 발견되는 감정의 온기를 회화적으로 풀어내며, 일상 속에 잠든 기억과 감정을 조용히 환기시킨다. 작가는 부드러운 색채와 겹겹이 쌓인 빛의 결을 통해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함을 '정원의 풍경'으로 그려낸다. 전시 제목에 담긴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장식이나, 기다림과 설렘, 그리고 위로의 감정을 상징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작품 속 은은한 빛과 색의 조화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 속 겨울과 마주하게 하며, 감정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문의 010-5303-9814



시간의 강에 기대어 최경식 / 청옥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온기를 머금은 시들을 모은 시집이다. 시인이 '읽어주시는 당신의 시간 속에도 따스한 햇살 한 줄기 머물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듯이 이 책은 독자에게 삶의 조용한 위안과 사색의 시간을 건넨다. 표제작 「시간의 강에 기대어」는 '물은 말없이 흐르고/그 위에 아른거리는 그림자 하나/조용히 스쳐 간다'는 구절에서 보이듯이, 시간과 삶의 흐름을 강물에 빚댄 서정적인 작품이다. '손에 쥐려 하면/더 멀어지는 순간들/돌아보면 모두가 선물이었다'는 대목에선 비록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시간일지라도 결국엔 모두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되새기게 한다. 총 5부로 구성된 시집은 독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선사한다.



행복한 여행 변종환 / 도서출판 두손컴

시인은 문학예술이 끝내 지켜야 할 힘을 '부드러움'에서 찾는다. 그 부드러움은 굳어진 것을 유연하게 만들고, 닫힌 것을 열어, 격앙된 것을 소곤거리게 하며 마음을 넓게 펴게 하는 것이다. 뛰어난 예술작품들이 가진 부드러운 감동으로 '그냥 기뻐하세요' '행복하여라'라고, 조용히 말을 건넨다. 시집은 제1부 천문대 가는 길, 제2부 남해 기행, 제3부 남해 시편, 제4부 민박집 최 할머니, 제5부 애진봉 가는 길로 구성됐다. 시인이 직접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냥 시의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시기하지 않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는 순수한 사랑과 돌아서면 다시 그리워지는 아름다움에 흠뻑 젖게 된다. 『행복한 여행』에서 우리는 동그란 마음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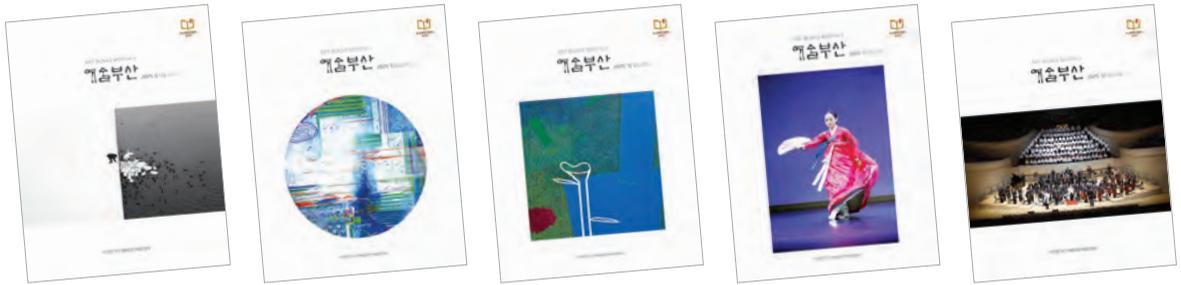


실천시론 신진 / 역락

시집과 에세이, 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신진 시인의 시 창작 이론서다. 저자는 수십 년간 대학에서 시 창작과 이론을 가르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시 쓰기와 이해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집필했다. 동시에 현대시의 특성과 논리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특히 '차유(差諭)', '반동시(反動詩)', '공동주체성' 등 기존 이론서에서 보기 어려운 개념들을 정립하고 체계화하며 현대시와 시론의 구조를 새롭게 모색한다.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며, 시의 놀이성과 윤곽, 공동주체로서의 자아실현, 시의 종류와 구성, 운율, 현대시의 기반과 논리까지 폭넓게 다룬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Play on Busan
문화공연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